

현안연구 2023-15

인구통계 및 전입 사유 분석을 통한 2022년 대전 합계출산율 반등 원인 도출

주혜진·김은하·김종우·최동식

연구책임	• 주혜진 /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은하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김종우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 • 최동식 / 도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연구지원	• 이슬기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현안연구 2023-15

인구통계 및 전입사유 분석을 통한 2022년 대전 합계출산율 반등 원인 도출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온라인 발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본 연구는 최근 대전시 인구 변화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실시 예정인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인구학적 기초연구의 일환임
 - 청년층의 대전 이주와 합계출산율 변화 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예정
 - 설문 문항 개발 및 분석 방향성 설정을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임
- 2023년 2월 기준, 16개 시도 합계출산율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대전시만 0.81명에서 0.84명 증가한 특징 보임
 - 조출생률 역시 2022년 5.3명으로 전년도 5.1명에서 0.2명 증가한 특성 있음
 - 최근 청년층 인구의 전출입 양상과 사유, 출산 행태 등을 분석하여 출산율 반등의 배경을 추정하고자 함

■ 대전 인구의 시계열적 변화 특성

-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조혼인율은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과 2022년에 증가함
- 대전 인구 대비 유소년인구는 2008년 18.8%에서 2022년 11.8%로 감소
 - 고령인구는 2008년 8.1%에서 2022년 16.1%로 두 배 정도 증가
- 2000년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지만, 2020년 이후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짐
- 모든 자치구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성구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5~45세의 청년층 인구는 2008년 536,331명으로 대전 총인구 대비

36.2%였으나, 2022년엔 429,573명으로 대전 총인구 대비 29.7%임

- '25~29세'의 연령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0~34세'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반면, '35~39세'와 '40~44세'의 연령별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2018~2022) 대전시 전출입 현황과 특성

- 최근 5년간 순이동을 살펴보면 인구 유출경향(-)이 둔화됐는데, 2018년 14,753명대비 2022년 -2,996명으로, 인구유출(-)이 11,757명 줄어들음
- 대전시로 유입된 인구의 이전 거주지는 경기 13,260명(17.6%), 충남(13,101명, 17.4%), 서울(10,454명, 13.9%), 세종(7,024명, 9.3%) 순임
- 대전을 떠나 전입한 지역은 충남 13,880명(17.7%), 경기(13,694명, 17.5%), 서울(13,169명, 16.8%), 세종(10,642명, 13.6%) 순임
- 대전과 다른 지역 간 순이동을 계산해 보면, 세종으로의 유출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세종(-3,618명), 서울(-2,715명), 충남(-779명), 경기(-434명) 순임
-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출입 인구수는 20대 > 30대 > 40대 > 50대 > 10대 미만 > 60대 > 10대 > 70대 > 80대 이상 순으로, 20대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남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대전으로의 전입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대와 60대는 증가함
 - 특히 20대 초반(20~24세)의 대전시 전입은 2020년 이후 전출 보다 많음(순이동 +)
- 최근 5년 간, 지역 내 이동을 제외하고, 대전으로의 전입 사유는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기타 > 주거환경 > 주거환경 순임
 - 전출 사유는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기타 > 주거환경 > 자연환경 순
-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 사유는 두드러진 변동이 보이지 않으나, 2022년 기준 20대의 전입 사유는 '직업'과 '교육' 비율이 높음

- 2022년 기준 30대의 전입 사유는 ‘직업’과 ‘가족’ 순임
- 40대 이하 청년 가구는 최근 5년 동안 유성구와 서구 순으로 전입해
옴
 - 세종에서 전입해 온 40대 이하 청년 가구도 유성구와 서구 순으로
전입해 옴
- 2019~2021년 주택 가격 변동과 물량 변화가 컸던 시점에 30대 이하
가구의 전출입 사유 중 ‘주택’의 비율이 높아진 특성 있음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방법	4
2장 광역시 출산율 견인 정책 사례	9
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9
2. 광역지자체 출산율 견인 정책 우수 사례	11
3장 대전 인구 출생 현황과 특성	23
1. 인구	23
2. 출생	32
4장 2018~2022년 대전시 전출입 자료 분석	41
1. 순이동으로 본 대전 인구 변화	41
2. 연령대별 전출입 현황과 특성	44
3. 전출입 사유 현황	47
4. 전출입 사유에 따른 기초자치구별 순이동 변화	51
5. 연령대별 전출입 사유	55
6. 기초자치구별 전입 현황과 특성	60
7. 청년가구의 전입 현황	61
8. 소결: 시기별 청년층 전출입과 출산율 변동	64
5장 청년세대의 대전 이동 분석 결과 시사점과 후속 연구 제안 사항	69

〈표 차례〉

[표 3-1] 인구 동태율 변화	23
[표 3-2] 전국 인구 변화(2008년~2022년)	24
[표 3-3] 대전광역시 인구 변화(2008년~2022년)	26
[표 3-4] 대전광역시 성별 인구 변화	27
[표 3-5]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인구 변화	28
[표 3-6] 대전광역시 25~45세 인구 변화(2008년~2022년)	29
[표 3-7] 대전광역시 성별 연도별 25~45세 인구 변화	30
[표 3-8] 대전광역시 25~45세 인구(2022년)	31
[표 3-9] 전국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32
[표 3-10] 대전광역시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33
[표 3-11] 대전광역시 출생아수 및 모의 평균 출산 연령 등 변화	34
[표 3-12] 대전광역시 성별 출생순위 및 출생성비 변화	35
[표 3-13] 자치구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2년)	36
[표 3-14] 자치구 출생아수 및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22년)	36
[표 3-15] 자치구 성별 출생순위 및 출생성비(2022년)	37
[표 4-1] 최근 5년간 20 - 24세의 전출입 현황	46
[표 4-2] 최근 5년간 25 - 29세의 전출입 현황	46

〈그림 차례〉

[그림 3-1] 전국 인구 변화(2008년~2022년)	25
[그림 3-2] 대전광역시 인구 변화(2008년~2022년)	27
[그림 3-3] 대전광역시 성별 연도별 인구 변화	28
[그림 4-1] 최근 5년간 순이동(전입-전출) 변화	41
[그림 4-2] 최근 5년간 대전-세종의 순이동 변화	43
[그림 4-3] 2022년 주요 시도간 전출입 비교	43
[그림 4-4]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 변화	44
[그림 4-5]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출 변화	45
[그림 4-6]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순이동 변화	46
[그림 4-7] 최근 5년간 전입 사유	47
[그림 4-8] 최근 5년간 전출 사유	48
[그림 4-9] 최근 5년간 순이동 사유	48
[그림 4-10] 최근 5년간 전입 사유(지역 내 이동 제외)	49
[그림 4-11] 최근 5년간 전출 사유(지역 내 이동 제외)	46
[그림 4-12] 최근 5년간 순이동 사유(지역 내 이동 제외)	50
[그림 4-13] 최근 5년간 대전시 순이동 사유 변화	51
[그림 4-14] 최근 5년간 동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52
[그림 4-15] 최근 5년간 중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52
[그림 4-16] 최근 5년간 서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53
[그림 4-17] 최근 5년간 유성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54
[그림 4-18] 최근 5년간 대덕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54
[그림 4-19] 2018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55
[그림 4-20] 2019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56
[그림 4-21] 2020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56
[그림 4-22] 2021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57
[그림 4-23] 2022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57
[그림 4-24]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 사유 변화	58
[그림 4-25] 최근 5년간 기초자치구별 전입 변화	60
[그림 4-26] 최근 5년간 구별 전입 변화	61
[그림 4-27] 최근 5년간 구별 세종 전입자 변화	62
[그림 4-28] 최근 5년간 전입 사유 변화	62
[그림 4-29] 최근 5년간 세종 전입자 사유 변화	63
[그림 4-30] 최근 5년간 세대별 순이동 변화	64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1장

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통계청이 2023년 2월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별 출생 통계를 보면,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¹⁾이 전년보다 감소했음
 - 대전광역시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0.03명 증가함
 - 대전광역시의 조출생률 역시 2022년 5.3명으로 전년도 5.1명에서 0.2명 증가한 특성 보임
- 2022년도 인구의 자연 증가를 드러내는 대표적 두 지표인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증가는 전국에서 유일한 현상으로, 절대 수치가 높은 세종시도 하락하는 전국적 경향에서 대전시만의 두드러진 현상임
- 주혜진 외(2018)는 이주 시민 대상 설문을 통해 세종시로의 이주 계기와 원인을 심층 분석한 바 있으며,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세종 거주 불만과 대전으로의 역이주 의사를 확인한 바 있음
 - 중장년층은 안정된 주거지 확보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 세종 거주 지속 요인이 다양했으나, 거주 불안과 세종 생활 물가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청년층은 대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응답이 세대별 유의미하게 차이 나타남
- 최근 출산율 상승에 청년층 인구의 전출입 양상, 대전으로 유입된 경향과 원인, 출산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근 독특하게 드러난 대전이 출산율 반등의 배경을 추정할 필요 있음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며,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한 것임

2) 연구 목적

- 인구통계 자료와 전입 사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근 대전시 인구 변화 특성 분석
- 주변 도시와의 관계, 대전으로의 이주와 거주 및 출산 경험 등 심층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 설계
- 대전 이주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분석 방향성 설정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대상 범위

- 2008년 이후 대전광역시 인구
- 최근 5년(2018~2022) 대전광역시 전출입 현황 및 전입 사유

정책적 범위

- 광역시·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 광역시·도 인구 정책

2) 연구 방법

문헌 검토 자료 분석

- 인구 및 출산·양육 지원 정책
 - 대전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 출산율 견인 정책 특성 파악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MDIS) 국내 이동통계 전출입 데이터
 - 대전시 전입 사례 추출과 전입신고서의 전입 사유 분석

□ **전문가 자문**

- 설문조사 등 추후 심층 분석을 위한 방법론 모색과 설계
 - 설문조사 대상 도출
 - 설문조사 문항 개발과 분석의 방향성 도출

광역시 출산율 견인 정책 사례

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2. 광역지자체 출산율 견인 정책 우수 사례

2장

2장 광역시 출산율 견인 정책 사례

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1) 정책 개요

- 배경: 대전시의 인구 순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 저출생 심화에 따른 자연 인구 감소
 -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 감소

- 목표: 2023년, 인구순유출 도시에서 인구순유입 도시로 전환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 만들기를 목표로 인구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 출생·돌봄(아동/부모) → 교육(청소년) → 대학(청년) → 일자리(청년) → 주거(청년) → 출생·돌봄(아동/부모)로 이어지는 대전시 인구 정책 흐름의 핵심 정책

- 지원 내역
 - 대상: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기존 출산장려지원금과 달리, 부모 소득 수준, 몇째아 구분 없이 출생 후 3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최대 10,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상태여야 함
 - 기존 시행 중인 출산장려지원금(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80만원)과 양육지원금(셋째아 이상 5만원*12개월 지급)을 통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아동수당을 합산하여 출생 시 200만원에 더하여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

2) 정책 성과

○ 지원 규모

- 2023년 상반기 중 월평균 2만2255명의 영유아 지원
- 2023년 1월부터 시작하여, 상반기까지 약 410억원 지출

○ 정책 수행 경과

- 대전시에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실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4월, 1064명을 대상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인지도 등 여론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7.3%로 나타남(매우 도움 74.2%, 대체로 도움 23.0%)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용처는 주로 식비(35.4%), 육아용품(34.8%)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출산, 육아의 주요 문제로 경제 및 일자리 문제(경제적 부담 40.8%, 일과 육아 병행 33.9%)로 나타남
- 또한 대전시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현금성 지원 확대(39.4%),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21.5%)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대전시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됨
- 특히, 대전시 출산 장려 정책의 향후 추진 필요 분야 역시 경제적 지원과 노동 조건(일가정 양립)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금성 지원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 매칭하기 위한 필요성도 제기

2. 광역지자체 출산율 견인 정책 우수 사례

- 광역지자체 출산율 견인 정책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대전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참고하기 위한 사항을 살펴봄
-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저출산 대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살펴봄
- 2022년 출산율 상위 광역지자체의 출산율 견인 정책의 사례를 검토함

1) 저출산 대책 우수 지자체: 광주광역시

○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 시리즈

-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저출산 대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
- 광주시 출산율은 2021년 0.896명, 2022년 0,844명으로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
- 광주시는 2019년 12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 시리즈 추진을 위한 추진본부를 출범시킴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운영(www.광주아이키움.kr):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포털 형식으로 제공
- 아이키움지원센터팀을 신설하고 총괄컨트롤타워구축
- 정책시리즈는 4개 카테고리로 구성

- ① 돌봄 서비스 기반 확충
- ② 촘촘한 생활거점 돌봄 인프라 구축
- ③ 청년출발 지원 및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 ④ ‘맘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

○ 광주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실시

- 광주시는 2019년 7월부터 민·관·학 추진협의회를 구축하여 ‘광주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개발 TF 운영

- 중점추진 전략: 1)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3) 돌봄 인프라 확충 4) 보육 공공성 강화 5) 일·생활 균형문화 조성

○ 광주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세부 내용

- 결혼

- ① 행복플러스건강 지원: 광주시 거주 첫 아이 임신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지원(부부합산 30만원 이내)
- ②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1684세대 규모(광주형평생주택 460세대,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 공급
- ③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녀수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차등 지원

- 임신

- ①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광주시 거주 난임 부부 대상으로 시술비(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여성 시술비 21회까지 지원) 지원
- ② 임신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광주시 소재 출산휴가자 고용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금 지원(99만원)
- ③ 임신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광주시 소재 기업 및 기관에 근무하는 임신부 대상 패키지 제공(임산부 전용의자 대여, 직장생활꾸러미, 노무 상담 등)
- ④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광주시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대상으로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⑤ 건강한 임신출산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임신부 교육 지원, 예비부부 건강교실 등 운영

- 출생

- ① 광주 출생육아 수당 지원: 다태아 출생세대(12-23개월) 영아 대상으로 출생 축하금 세대당 100만원 지원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광주시는 소득과 무관하게 다태아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취약계층 산모(장애, 미혼모, 새터민, 결혼이주 등) 산모 영양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

아 돌봄 서비스 제공(1일 8시간, 주5일 원칙)

- ③ 출산맘 나눔가게 운영: 예비 출산가정 및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광주 시내 2개소 운영(출산 및 육아용무 기부와 교환, 육아 프로그램 운영, 휴식공간 제공)
- ④ 출생가정 광주상생카드 할인 제공: 2023년 출생아를 광주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대상으로 광주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사용시 10% 할인

- 육아

- ①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만6개월-만5세 이하 영유아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를 광주시 2개소에서 운영(월 7건 혹은 월 80시간 한도)
-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지원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지원
- ③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상담 지원: 부모 교육, 상담, 부모-자녀활동, 장난간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실 운영
- ④ 영유아 실내놀이 체험 '키움뜰' 운영: 24개월-만 5세 영유아 대상으로 영유아 실내놀이 문화체험시설 운영

- 돌봄

- ①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광주시내 거주하는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아동간병, 종합돌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② 손자녀돌보미 지원: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대상으로 종일제(월30만원), 시간제(월20만원)으로 자택 내 돌봄지원(중위소득 150이하, 쌍둥이 혹은 3자녀 이상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 ③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 맞벌이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방문(시간제: 연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80~200시간 이내). 이용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며, 광주시내 일부를 차등 지원
- ④ 여성가족친화마을 돌봄: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돌봄마을 4개소에서 돌

봄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공동육아, 돌봄 서비스 운영

- 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주중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소득기준 무관하게 월10만원 이내
- ⑥ 생활권 청소년 자유평간 조성: 광주시 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의 유휴공간 활용하여 청소년 자유평간 조성(2023년 기준 10개소), 북카페, 스터디룸, 동아리실, 쉼터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
- ⑦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광주시 초중고교 신입생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보호자에게 지급(초등 10만원, 중고등 30만원)

- 일·생활균형

- ① 모·부성권 보장 권리구제지원 및 권리구제단 운영: 광주시 관내 부모 대상으로 노동상담(출산 및 육아 휴직 관련 노무 상담), 권리구제(모부성권 권리보장 침해 관련 조력 지원)위한 권리구제단 운영
- ② 가족친화경영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지원: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30개소)으로 가족친화경영 기업 지원금(2백만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월20만원*최대10개월) 지원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200명(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보상비 지원(최대31만2천원)
- ④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운영: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300인 미만 고용보험 사업장 중 초등학교 자녀 입학기(3월~7월)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2개월 인건비 손실분 지원(2개월 69만원)

2) 출산율 상위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연앙인구는 2021년 362,921명, 2022년 376,991명으로 증가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21년 1.28명, 2022년 1.12명으로 감

소하였으나,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명을 넘고 있음

○ 세종시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세종시는 2023년 9월,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세종시 합계출산율이 8년 연속(‘15~22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추세 자체는 감소세
- 위원회와 세종시는 우수 정책사례 공유 및 최근 출산 감소세에 대한 공동 해법 모색
- 본 업무협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업무협약의 대표사례

○ 세종시 출산·돌봄 정책 사례

- 출산 관련 정책

- ① 출산축하금: 세종시에 출생 신고 후, 출생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대상으로 지역화폐 120만원 지원(자녀 출생 순서 조건 없음)
- ②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영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 ③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 대상 부모 급여 지급(가정양육시: 만0세 월 70만원+만1세 월35만원, 어린이집: 만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만1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

- 돌봄 관련 정책

- ①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세종시 1년 이상 거주한 남성근로자(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제외) 중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충족한 경우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최대 6개월)
- ② 아이돌봄 사업: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여계서비스). 또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모니터링단 현장 점검 병행

- ③ 보육료/양육수당: 만0세-5세 보육료(어린이집 이용시) 지원(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하는 가정양육시 양육수당 지원(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3) 출산율 상위 지자체: 전라남도

○ 전라남도 인구 현황

- 전라남도의 연앙인구는 2021년 1,820,069명 2022년 1,833,020명으로 증가
- 전라남도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1.02명, 2022년 0.97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전라남도 ‘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정책

- 전라남도는 2015년 「전라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일·생활 균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전문인력 양성,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지원센터를 설치
- 전라남도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일·생활 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정전남, 워라밸랜드’를 표방하는 인구 정책 구상 및 실시
- (비전 및 전략)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전남형 워라벨 기업’, ‘전남형 워라벨 마을’, ‘전남형 워라벨 사회’ 세 범주를 축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 실시
- 일생활 균형지원센터를 축으로, 도내의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여성친화일촌기업과 도민(소모임, 공동체 등)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추진 체계 마련

○ 전라남도 출산·돌봄 정책 사례

- 결혼전 및 결혼초기

-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대상으로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항목 검진비 지원(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범위)

한도)

- ②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중 425가구 대상으로 이자 지원(매월 5만원-15만원 범위*36개월 까지)

- 임신 및 출산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양방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대상으로 시술별 차등 지급(회당 20~110만원 이내), 한방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44세 이하 여성 대상으로 1인 180만원 이내 지원
- ②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도내 난임부부, 임신부, 가임여성 대상으로 난임 관련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 연계 제공
- ③ 임신부 영양플러스 사업: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또는 수유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 맞춤형 보충식품 가정으로 배송
- ④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신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 대상으로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의료급여수급자는 300만원 한도에서 100% 지원)
- ⑤ 출산장려금 지원: 30만원, 1회(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지원)
- ⑥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도내 산모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2023년 기준 3개소 운영)
- ⑦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하여 산후지원(출생아 수에 따라 5-25일까지 지원)
- ⑧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당해연도 출생한 관내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⑨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및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특히 발달장애 의심아동은 확진검사비 추가 지원(20-40만원)

- 양육 및 보육

-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 대상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②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어린이집 재학 중인 만3-5세 유아 대상으로 학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월6만원, 사립 유치원 월 22만원)
- ③ 가정양육 수당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월10-20만원 차등 지원
- ④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평일 운영)
- ⑤ 아이돌봄 서비스: 전라남도 주민등록된 영유아 대상으로 종일제돌봄(만3개월-36개월 아동 가정에 아이돌모비가 방문하여 육아 전반에 관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연계돌봄(만0세-12세 아동 대상 1회 2시간 이상 돌봄 제공), 질병감염아동지원(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된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 병원 동행, 재가 돌봄 제공) 서비스 제공

대전 인구 출생 현황과 특성

1. 인구
2. 출생

3장

3장 대전 인구 출생 현황과 특성

1. 인구

1) 시계열로 보는 대전 인구

- 전국의 인구 동태율 변화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조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음
- 대전의 인구 동태율 변화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조혼인율은 감소하다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냄. 조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연증가율 및 조이혼율은 감소하고 있음

[표 3-1] 인구 동태율 변화

(단위 : 명)

구분	연도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천명당)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율 (천명당)	조혼인율 (천명당)	조이혼율 (천명당)
전국	2000	1.480	13.5	5.2	8.2	7.0	2.5
	2005	1.085	9.0	5.1	4.0	6.5	2.6
	2010	1.226	9.4	5.1	4.3	6.5	2.3
	2015	1.239	8.6	5.4	3.2	5.9	2.1
	2020	0.837	5.3	5.9	-0.6	4.2	2.1
	2021	0.808	5.1	6.2	-1.1	3.8	2.0
	2022	0.778	4.9	7.3	-2.4	3.7	1.8
	대전	2000	1.501	14.2	4.2	10.0	7.0
2005		1.107	9.6	4.0	5.6	6.2	2.3
2010		1.205	9.6	4.2	5.4	6.3	2.1
2015		1.277	9.1	4.6	4.5	5.8	2.0
2020		0.805	5.1	5.2	-0.1	4.1	2.1
2021		0.810	5.1	5.4	-0.3	3.7	1.9
2022		0.842	5.3	6.4	-1.1	3.9	1.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 전국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3-2] 전국 인구 변화(2008년~2022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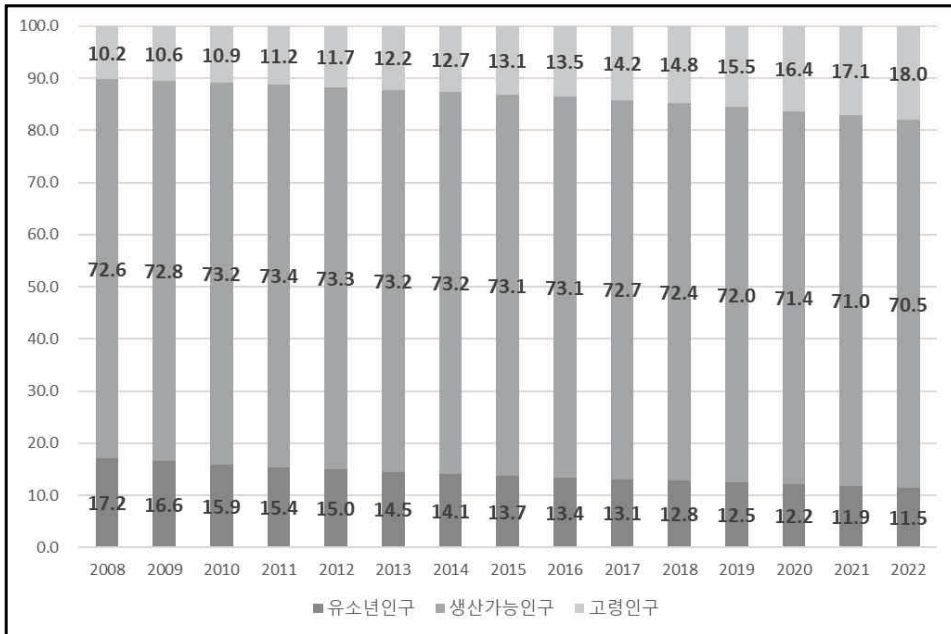
연도	총인구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인구 증감률
2008	49,540,367	8,518,987	35,952,107	5,069,273	-
2019	49,773,145	8,248,987	36,256,450	5,267,708	0.47
2010	50,515,666	8,019,969	36,989,345	5,506,352	1.49
2011	50,734,284	7,810,380	37,222,932	5,700,972	0.43
2012	50,948,272	7,624,687	37,343,525	5,980,060	0.42
2013	51,141,463	7,433,119	37,457,358	6,250,986	0.38
2014	51,327,916	7,254,399	37,552,910	6,520,607	0.36
2015	51,529,338	7,061,513	37,692,724	6,775,101	0.39
2016	51,696,216	6,916,147	37,784,417	6,995,652	0.32
2017	51,778,544	6,785,965	37,636,473	7,356,106	0.16
2018	51,826,059	6,628,610	37,547,041	7,650,408	0.09
2019	51,849,861	6,466,872	37,356,074	8,026,915	0.05
2020	51,829,023	6,307,659	37,025,287	8,496,077	-0.04
2021	51,638,809	6,124,546	36,663,230	8,851,033	-0.37
2022	51,439,038	5,890,594	36,281,154	9,267,290	-0.3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세별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부터 제공)

- 전국 인구를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의 비율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총인구 대비 유소년인구는 2008년 17.2%에서 2022년 11.5%로 감소함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72.6%에서 2022년 70.5로 감소함
 -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는 2008년 10.2%에서 2022년 18.0%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임

[그림 3-1] 전국 인구 변화(2008년~2022년)

(단위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세별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부터 제공)

- 전국의 인구 증가는 2019년까지 지속되었지만, 대전의 인구증가는 2013년까지 지속됨
- 대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유소년인구는 2008년 278,052명에서 2022년 170,78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1,083,621명에서 2013년 1,138,507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042,62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고령인구는 2008년 119,222명에서 2022년 232,66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3-3] 대전광역시 인구 변화(2008년~2022년)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인구 증감률
2008	1,480,895	278,052	1,083,621	119,222	-
2019	1,484,180	268,263	1,091,397	124,520	0.22
2010	1,503,664	260,389	1,113,030	130,245	1.31
2011	1,515,603	254,839	1,125,024	135,740	0.79
2012	1,524,583	249,087	1,132,517	142,979	0.59
2013	1,532,811	243,653	1,138,507	150,651	0.54
2014	1,531,809	236,053	1,137,427	158,329	-0.07
2015	1,518,775	224,747	1,128,500	165,528	-0.85
2016	1,514,370	217,638	1,125,164	171,568	-0.29
2017	1,502,227	209,595	1,111,965	180,667	-0.80
2018	1,489,936	200,703	1,100,703	188,530	-0.82
2019	1,474,870	191,833	1,084,346	198,691	-1.01
2020	1,463,882	184,449	1,068,649	210,784	-0.75
2021	1,452,251	177,243	1,053,801	221,207	-0.79
2022	1,446,072	170,784	1,042,625	232,663	-0.43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세별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부터 제공)

주 1. 유소년인구 : 0~14세의 인구

주 2. 생산가능인구 : 15~64세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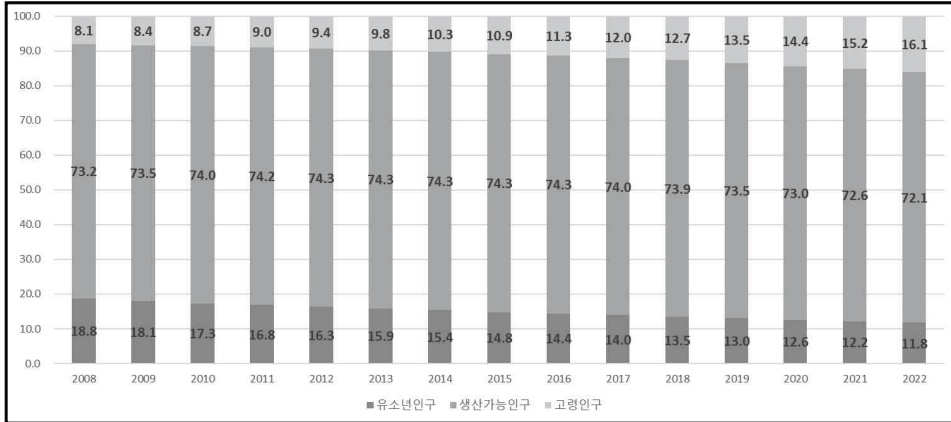
주 3. 고령인구 : 65세 이상 인구

○ 대전 인구를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의 비율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음

- 대전 인구 대비 유소년인구는 2008년 18.8%에서 2022년 11.8%로 감소함
- 대전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73.2%에서 2022년 72.1%로 감소함
- 대전 인구 대비 고령인구는 2008년 8.1%에서 2022년 16.1%로 두 배 정도 증가하여 고령사회임

[그림 3-2] 대전광역시 인구 변화(2008년~2022년)

(단위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세별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부터 제공)

-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2015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있음
 - 2000년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지만, 2020년 이후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짐

[표 3-4] 대전광역시 성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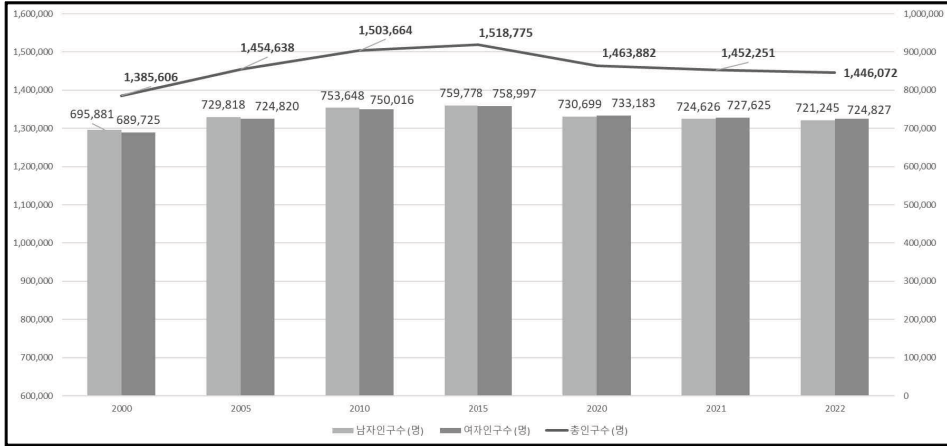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총인구수	남	여
2000	1,385,606	695,881	689,725
2005	1,454,638	729,818	724,820
2010	1,503,664	753,648	750,016
2015	1,518,775	759,778	758,997
2020	1,463,882	730,699	733,183
2021	1,452,251	724,626	727,625
2022	1,446,072	721,245	724,827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3] 대전광역시 성별 연도별 인구 변화

(단위 : 명)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자치구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서구는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로 감소함
- 유성구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유성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표 3-5]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00	252,684	267,014	476,893	157,638	231,377
2005	234,724	266,635	509,225	220,767	223,287
2010	248,835	265,846	499,742	281,692	207,549
2015	239,579	256,186	490,859	335,312	196,839
2020	223,021	235,550	477,880	351,047	176,384
2021	222,222	230,341	473,365	351,277	175,046
2022	219,751	227,108	470,374	356,093	172,746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청년층 인구 현황과 특성

- 25~45세의 청년층 인구는 2008년 536,331명으로 대전 인구 대비 36.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429,573명으로 대전 인구 대비 29.7%를 보임

[표 3-6] 대전광역시 25~45세 인구 변화(2008년~2022년)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수	25~45세 인구수	총인구대비 비율	25~45세 인구증감률
2008	1,480,895	536,331	36.2	-
2019	1,484,180	531,684	35.8	-0.87
2010	1,503,664	531,819	35.4	0.03
2011	1,515,603	527,771	34.8	-0.76
2012	1,524,583	522,651	34.3	-0.97
2013	1,532,811	516,172	33.7	-1.24
2014	1,531,809	503,166	32.9	-2.52
2015	1,518,775	486,276	32.0	-3.36
2016	1,514,370	477,166	31.5	-1.87
2017	1,502,227	465,295	31.0	-2.49
2018	1,489,936	454,655	30.5	-2.29
2019	1,474,870	443,036	30.0	-2.56
2020	1,463,882	436,170	29.8	-1.55
2021	1,452,251	431,678	29.7	-1.03
2022	1,446,072	429,573	29.7	-0.4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세별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부터 제공)

- 대전의 25~45세 성별 변화는 남녀 모두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이후 대전의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지만, 대전의 25~45세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

- 25~45세의 남녀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2008년 남성이 여성보다 759명 많았고, 매년 이러한 격차는 벌어져 2022년 남성이 여성보다 16,969명 많이 나타남

[표 3-7] 대전광역시 성별 연도별 25~45세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25~45세 인구수	남	여
2008	536,331	268,545	267,786
2019	531,684	266,207	265,477
2010	531,819	267,097	264,722
2011	527,771	265,499	262,272
2012	522,651	262,789	259,862
2013	516,172	260,334	255,838
2014	503,166	254,589	248,577
2015	486,276	247,297	238,979
2016	477,166	243,187	233,979
2017	465,295	237,861	227,434
2018	454,655	233,143	221,512
2019	443,036	228,307	214,729
2020	436,170	225,630	210,540
2021	431,678	223,970	207,708
2022	429,573	223,271	206,30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세별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부터 제공)

- 대전의 25~45세 인구의 각 연령별 현황은 42세(22,645명)가 가장 많았으며, 35세(17,543명)가 가장 적게 나타남
 - 자치구별 25~25세 인구는 서구(146,926명)가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120,123명), 중구(59,512명), 동구(57,501명), 대덕구(45,511명) 순으로 나타남
 - 대전의 25~45세 인구는 남성(223,271명)이 여성(206,302명)보다 많음

[표 3-8] 대전광역시 25~45세 인구(2022년)

(단위 : 명, %)

연령	25~45세 인구수	남	여	대전 인구 대비 비율
25세	21,671	11,307	10,364	1.5
26세	21,862	11,654	10,208	1.5
27세	22,237	11,974	10,263	1.5
28세	21,902	11,729	10,173	1.5
29세	21,332	11,448	9,884	1.5
30세	21,385	11,385	10,000	1.5
31세	20,552	10,811	9,741	1.4
32세	18,808	10,207	8,601	1.3
33세	18,112	9,646	8,466	1.3
34세	17,779	9,598	8,181	1.2
35세	17,543	9,132	8,411	1.2
36세	17,621	9,329	8,292	1.2
37세	18,066	9,360	8,706	1.2
38세	18,008	9,182	8,826	1.2
39세	20,117	10,248	9,869	1.4
40세	22,314	11,256	11,058	1.5
41세	22,917	11,554	11,363	1.6
42세	22,645	11,277	11,368	1.6
43세	22,436	11,172	11,264	1.6
44세	20,424	10,237	10,187	1.4
45세	21,842	10,765	11,077	1.5
합계	429,573	223,271	206,302	29.7
동구	57,501	30,786	26,715	4.0
중구	59,512	30,346	29,166	4.1
서구	146,926	74,493	72,433	10.2
유성구	120,123	62,815	57,308	8.3
대덕구	45,511	24,831	20,680	3.1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출생

1) 시계열로 보는 대전 출생

-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0에서 2022년 0.778로 감소함
 -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감소와 증가를 보이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함
 -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25~29세'의 연령별 출산율(150.3명)이 가장 높은 반면, 2022년은 '30~34세'의 연령별 출산율(73.5명)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9] 전국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단위 : 명)

연도	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0	1.480	2.6	39.2	150.3	84.1	17.6	2.7	0.2
2005	1.085	2.2	18.0	92.1	82.1	19.0	2.5	0.2
2010	1.226	1.8	16.5	79.7	112.4	32.6	4.1	0.2
2015	1.239	1.4	12.5	63.1	116.7	48.3	5.6	0.2
2020	0.837	0.7	6.2	30.6	78.9	42.3	7.1	0.2
2021	0.808	0.4	5.0	27.5	76.1	43.5	7.6	0.2
2022	0.778	0.4	4.1	24.0	73.5	44.1	8.0	0.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주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 해당연령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증가함
 - 합계출산율은 2000년 1.501명에서 2022년 0.842명으로 감소하였음
 -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805명이며, 이후 2021년 0.810명, 2022년 0.842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임

-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25~29세'의 연령별 출산율(153.8명)이 가장 높은 반면, 2022년 '30~34세'의 연령별 출산율(78.5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5~19세'와 '20~24세', '25~29세'의 연령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30~34세'는 2015년(120.6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반면, '35~39세'와 '40~44세'의 연령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3-10] 대전광역시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단위 : 명)

연도	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0	1.501	2.9	38.7	153.8	84.6	17.6	3.0	0.1
2005	1.107	2.1	17.7	95.7	83.9	18.0	2.4	0.2
2010	1.205	1.4	16.5	78.4	111.2	31.5	3.5	0.2
2015	1.277	1.8	12.4	67.1	120.6	47.9	5.0	0.2
2020	0.805	0.8	5.9	30.1	76.1	39.7	6.4	0.2
2021	0.810	0.5	5.0	28.9	76.6	41.9	6.8	0.2
2022	0.842	0.3	5.0	26.8	78.5	47.4	8.3	0.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합계출산율 : 가입여성 1명당 출생아 수

주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 해당연령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 대전의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7,414명) 이후 증가함
 -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0년 19세에서 2022년 33.28세로 증가함
 -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아 수는 혼인 증과 혼인 외 출생 모두 감소하다가 2021년 이후 증가함

[표 3-11] 대전광역시 출생아수 및 모의 평균 출산 연령 등 변화

(단위 : 명, 세)

연도	출생아수	모의 평균 출산 연령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혼인 중	혼인 외	미상
2000	19,570	29.00	19,246	260	64
2005	13,950	30.13	13,605	276	69
2010	14,314	31.22	13,954	264	96
2015	13,774	32.11	13,525	248	1
2020	7,481	32.92	7,277	201	3
2021	7,414	33.08	7,182	232	0
2022	7,677	33.28	7,345	332	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1999년부터 영아사망 및 기아자료 등이 보완됨에 따라 미상 발생

- 대전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출생순위의 출생아 수는 감소함
 - 출생성비는 2000년 107.1명에서 2022년 107.1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 1아의 출생성비는 2000년 100.8명에서 2022년 107.4명으로 증가함
 - 2아의 출생성비는 2000년 106.6명에서 2022년 105.5명으로 소폭 감소함
 - 3아의 출생성비는 2000년 141.4명에서 2021년 95.0명, 2022년 111.4명으로 감소함

[표 3-12] 대전광역시 성별 출생순위 및 출생성비 변화

(단위 : 명)

시점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총계	계	19,570	13,950	14,314	13,774	7,481	7,414	7,677
	남	10,122	7,226	7,387	7,143	3,913	3,851	3,970
	여	9,448	6,724	6,927	6,631	3,568	3,563	3,707
	출생성비	107.1	107.5	106.6	107.7	109.7	108.1	107.1
1아	계	9,088	6,981	6,962	7,041	4,221	4,159	5,179
	남	4,562	3,573	3,657	3,654	2,177	2,200	2,682
	여	4,526	3,408	3,305	3,387	2,044	1,959	2,497
	출생성비	100.8	104.8	110.7	107.9	106.5	112.3	107.4
2아	계	8,193	5,424	5,594	5,262	2,634	2,627	2,032
	남	4,228	2,761	2,817	2,733	1,394	1,345	1,043
	여	3,965	2,663	2,777	2,529	1,240	1,282	989
	출생성비	106.6	103.7	101.4	108.1	112.4	104.9	105.5
3아 이상	계	2,216	1,455	1,621	1,449	623	628	465
	남	1,298	832	833	743	340	306	245
	여	918	623	788	706	283	322	220
	출생성비	141.4	133.5	105.7	105.2	120.1	95.0	111.4
미상	계	73	90	137	22	3	0	1
	남	34	60	80	13	2	0	0
	여	39	30	57	9	1	0	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

2) 기초자치구 출생

- 자치구별 합계출산율은 유성구(0.958명)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자치구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가장 많았으며 '35~39세'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3-13] 자치구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2022년)

(단위 : 명)

자치구	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동구	0.788	0.0	3.7	25.1	73.0	45.0	7.7	0.1
중구	0.713	0.0	4.9	25.6	62.6	40.5	7.1	0.0
서구	0.795	0.3	5.6	24.2	73.6	45.2	7.6	0.2
유성구	0.958	0.2	3.9	29.4	93.7	53.7	9.5	0.3
대덕구	0.913	1.3	7.2	33.8	79.7	48.5	9.7	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합계출산율 : 가입여성 1명당 출생아 수

주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 해당연령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 2022년 자치구별 출생아수는 서구(2,555명)가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2,469명), 동구(915명), 중구(897명), 대덕구(841명) 순으로 나타남
-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유성구가 33.61세로 가장 높았으며, 동구 33.33세, 서구 33.18세, 중구 32.98세, 대덕구 32.84세 순으로 나타남

[표 3-14] 자치구 출생아수 및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22년)

(단위 : 명, 세)

자치구	출생아수	모의 평균 출산 연령
동구	915	33.33
중구	897	32.98
서구	2,555	33.18
유성구	2,469	33.61
대덕구	841	32.8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1999년부터 영아사망 및 기아자료 등이 보완됨에 따라 미상 발생

- 2022년 자치구별 출생성비는 대덕구가 119명으로 남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유성구의 출생성비는 103명, 서구 106명, 동구 및 중구는 각각 110명, 대덕구는 119명으로 나타남
- '1아'의 출생성비는 대덕구(134명)가 가장 높았으며, 동구(124명), 중구(109명), 서구(104명), 유성구(96명) 순으로 나타남
- '2아'의 출생성비는 중구(119명)가 가장 높았으며, 유성구(112명), 서구(106명), 대덕구(96명), 동구(81명) 순으로 나타남
- '3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유성구(140명)가 가장 높았으며, 서구(129명), 중구(77명), 동구와 대덕구(74명) 순으로 나타남

[표 3-15] 자치구 성별 출생순위 및 출생성비(2022년)

(단위 : 명)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총계	계	915	897	2,555	2,469	841
	남	479	469	1,315	1,250	457
	여	436	428	1,240	1,219	384
	출생성비	110	110	106	103	119
1아	계	671	607	1,680	1,642	579
	남	371	317	856	806	332
	여	300	290	824	836	247
	출생성비	124	109	104	96	134
2아	계	203	237	696	688	208
	남	91	129	358	363	102
	여	112	108	338	325	106
	출생성비	81	119	106	112	96
3아 이상	계	40	53	179	139	54
	남	17	23	101	81	23
	여	23	30	78	58	31
	출생성비	74	77	129	140	74
미상	계	1	0	0	0	0
	남	0	0	0	0	0
	여	1	0	0	0	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

2018~2022년

대전시 전출입 자료 분석

1. 순이동으로 본 대전 인구 변화
2. 연령대별 전출입 현황과 특성
3. 전출입 사유 현황
4. 전출입 사유에 따른 기초자치구별 순이동 변화
5. 연령대별 전출입 사유
6. 기초자치구별 전입 현황과 특성
7. 청년가구의 전입 현황
8. 소결: 시기별 청년층 전출입과 출산율 변동

4장

4장 2018~2022년 대전시 전출입 자료 분석

1. 순이동으로 본 대전 인구 변화

- 타 시도와 대전 및 대전 지역 내 이동 포함 분석

1) 최근 5년간 순이동 분석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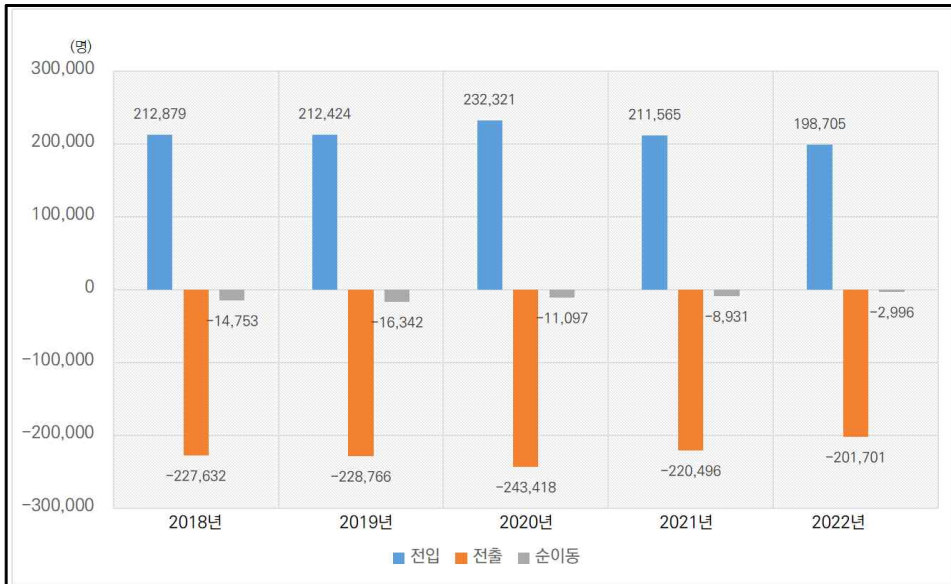
○ 순이동

- 최근 5년간 순이동을 살펴보면 인구 유출 경향(순이동 -)이 둔화됨
- 2018년(-14,753명) 대비 2022년(-2,996명) 유출 (-11,757명) 감소

○ 전입·전출 인구수 감소 추세

- 전입과 전출의 모두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음
- 전입 : 2018년(212,879명) - 2022년(198,705명) = 14,174명 감소
- 전출 : 2018년(-227,632명) - 2022년(-201,701명) = -25,931명 감소

2)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이용하여 데이터 추출 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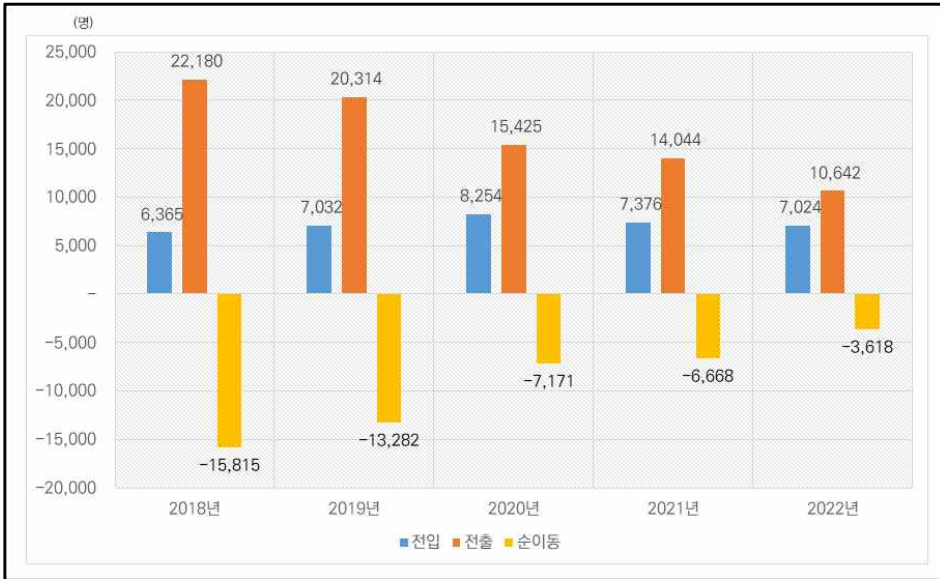


[그림 4-1] 최근 5년간 순이동(전입-전출) 변화

2) 2022년 순이동 분석

- 대전시를 중심으로 이동을 살펴보면, 총전입 198,705명 대비 총전출 201,701 명으로 나타나 순이동은 -2,996명이었음
- (전입) 대전시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충청권(세종, 충남, 충북) 37.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4.4% 순임
 - 경기 13,260명(17.6%), 충남(13,101명, 17.4%), 서울(10,454명, 13.9%), 세종(7,024명, 9.3%)
- (전출) 대전시에서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충청권(세종, 충남, 충북) 40.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7.4%
 - 충남 13,880명(17.7%), 경기(13,694명, 17.5%), 서울(13,169명, 16.8%), 세종 (10,642명, 13.6%) 순으로 유출
- 대전시의 전체 순이동(전입-전출)은 -2,996명이며, 대전과 세종시 간 순이동은 -3,618명으로, 지역 간 유출 중 가장 많은 수입
 - 서울(-2,715명), 충남(-779명), 경기(-434명) 순으로 유출

○ 대전-세종 : 대전-세종간의 인구유출(-)은 둔화하는 경향



[그림 4-2] 최근 5년간 대전-세종의 순이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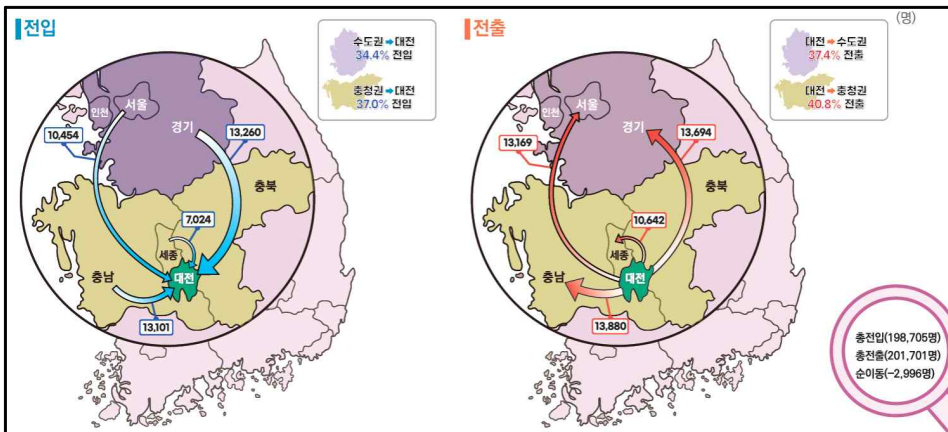


그림: 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 2023-5호(통권82호)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4-3] 2022년 주요 시도간 전출입 비교

2. 연령대별 전출입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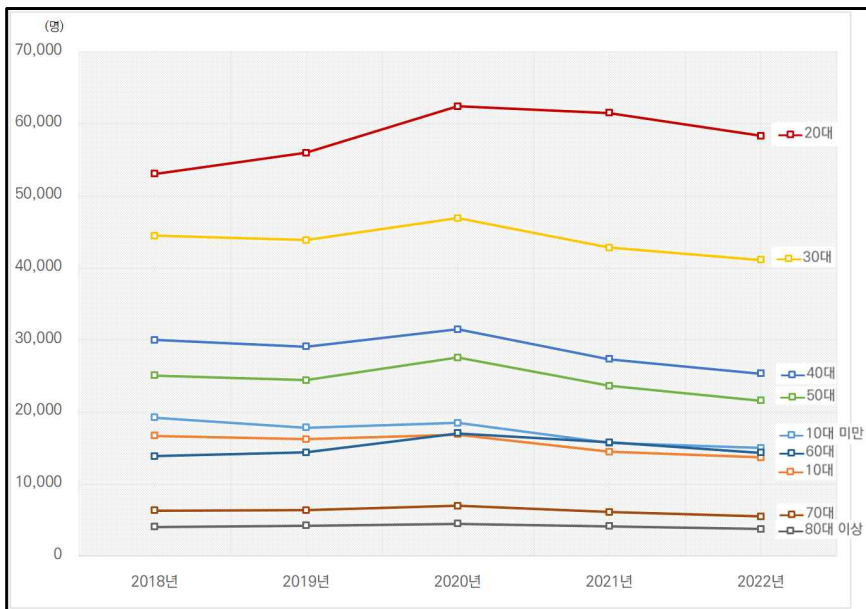
□ 타 시도와 대전 및 대전 지역 내 이동 포함 분석

1)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출입 현황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출입 현황을 보면, 전출입 인구수는 일반적으로 20대 > 30대 > 40대 > 50대 > 10대 미만 > 60대 > 10대 > 70대 > 80대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구분(전입, 전출, 년도)에 따라 일부 달라짐

○ 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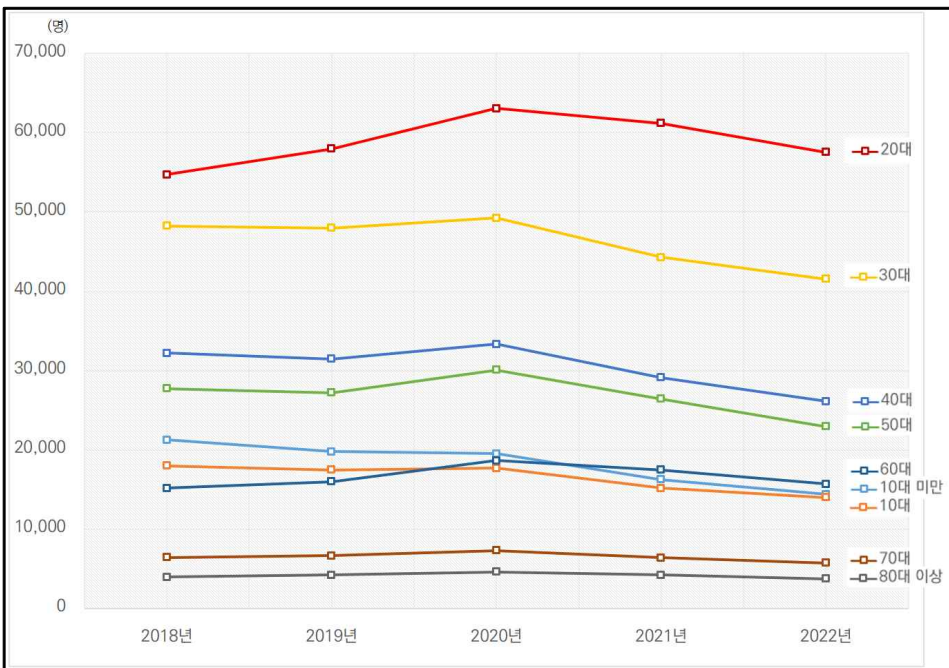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입 인구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대와 60대는 증가하였음
- 20대는 2018년(53,049명) 대비 2022년(58,349명) 전입 인구수가 5,300명 증가
- 60대는 2018년(13,862명) 대비 2022년(14,368명) 전입 인구수가 506명 증가
- 2020년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입 인구수가 증가하였음



[그림 4-4]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 변화

○ 전출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출 인구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대와 60대는 증가하였음
- 20대는 2018년(54,694명) 대비 2022년(54,570명) 전출 인구수가 5,300명 증가
- 60대는 2018년(15,186) 대비 2022년(15,666명) 전출 인구수가 480명 증가
- 2020년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출 인구수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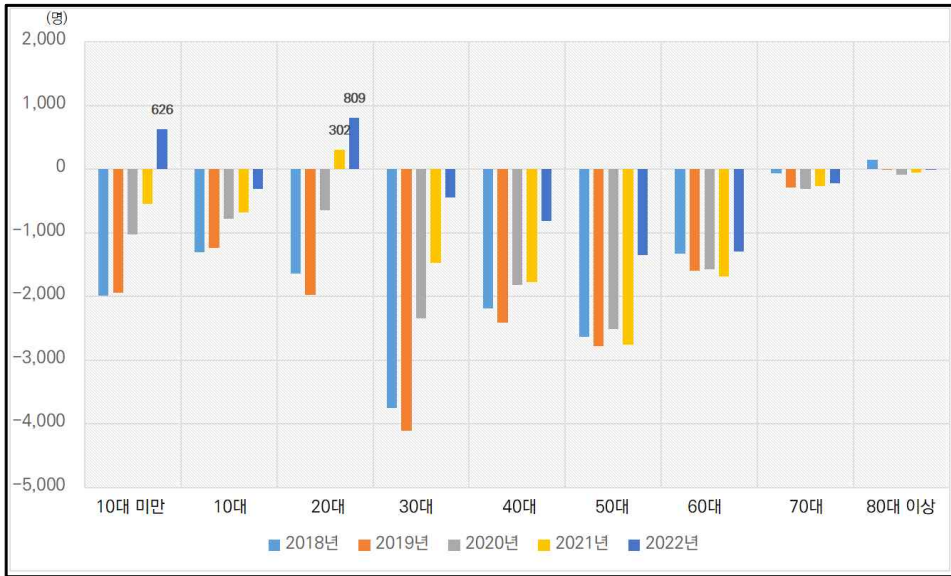


[그림 4-5]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출 변화

○ 순이동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순이동은 인구 유출 경향(-)을 보였음
- 인구 유출 경향(-)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
- 10대 미만은 인구 유출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302명)에 반전됨
- 2018년 대비 2022년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20-24세와 25-29세는

각각 1,157명, 1,297명의 차이 발생함



[그림 4-6]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순이동 변화

- 20대는 인구 유출 경향(-)을 보이다가 2021년(302명)과 2022년(809명)에 인구 유입 경향(+)을 보임

[표 4-1] 최근 5년간 20 - 24세의 전출입 현황

년도	연령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2018년	20 - 24세	23,091	23,292	-201
2019년	20 - 24세	24,314	24,639	-325
2020년	20 - 24세	27,529	27,189	340
2021년	20 - 24세	27,178	26,242	936
2022년	20 - 24세	25,226	24,270	956

[표 4-2] 최근 5년간 25 - 29세의 전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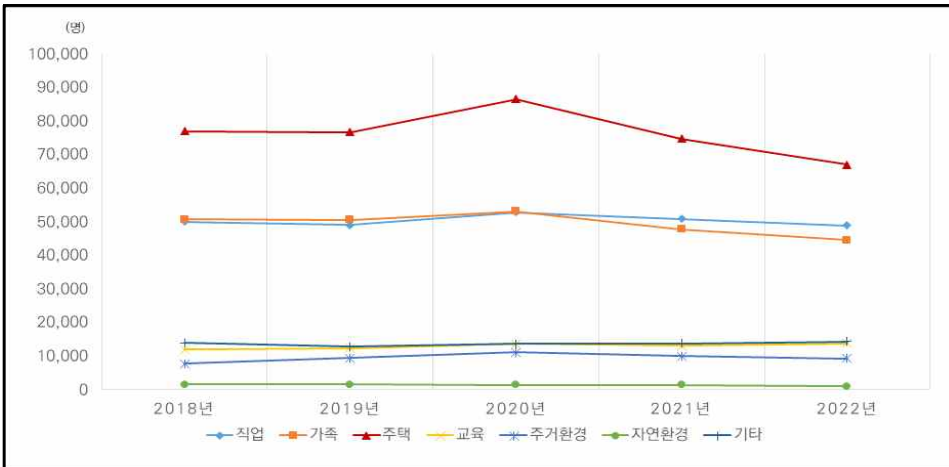
년도	연령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2018년	25 - 29세	29,958	31,402	-1,444
2019년	25 - 29세	31,666	33,319	-1,653
2020년	25 - 29세	34,888	35,869	-981
2021년	25 - 29세	34,326	34,960	-634
2022년	25 - 29세	33,123	33,270	-147

3. 전출입 사유 현황

□ 타 시도와 대전 및 대전 지역 내 이동 포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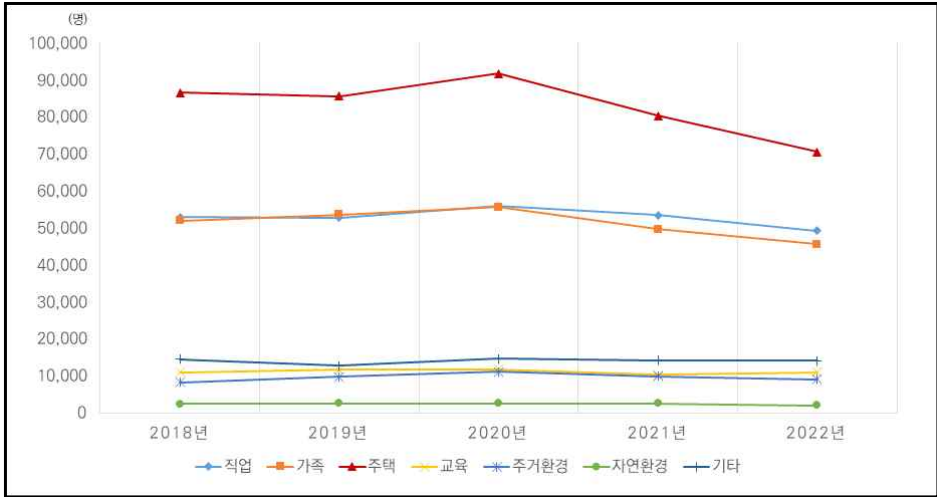
1) 최근 5년간 전출입 사유

○ 전입 : 전입 사유는 2022년 기준, 주택 > 가족 > 직업 > 기타 > 교육 > 주거환경 > 주거환경 순(시계열 상 일부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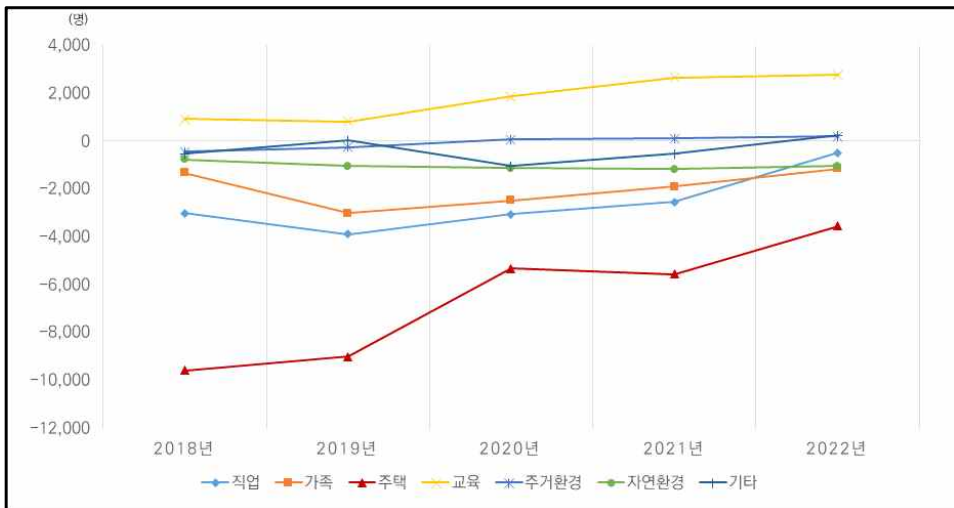
[그림 4-7] 최근 5년간 전입 사유

○ 전출 : 전출 사유는 2022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기타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순(시계열상 일부 차이 발생)



[그림 4-8] 최근 5년간 전출 사유

○ 순이동 : 순이동 사유는 2022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자연환경
기타 > 주거환경 > 교육 순(시계열상 일부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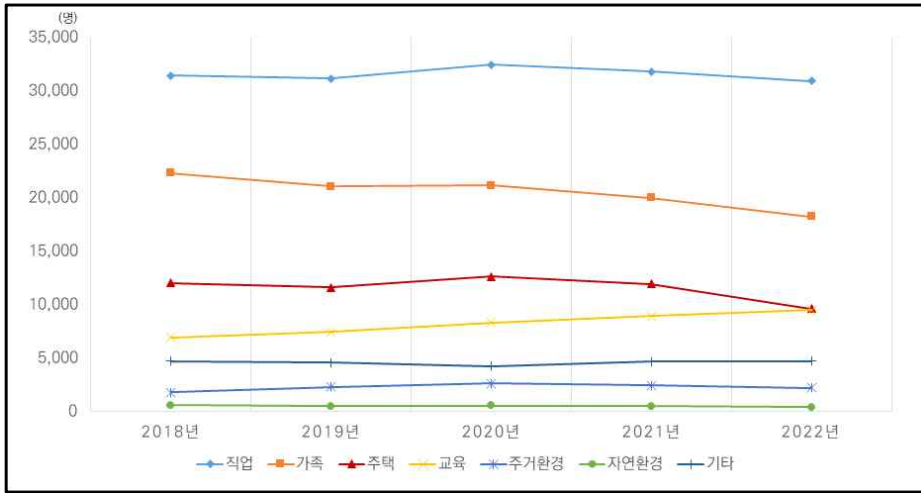


[그림 4-9] 최근 5년간 순이동 사유

2) 최근 5년간 전출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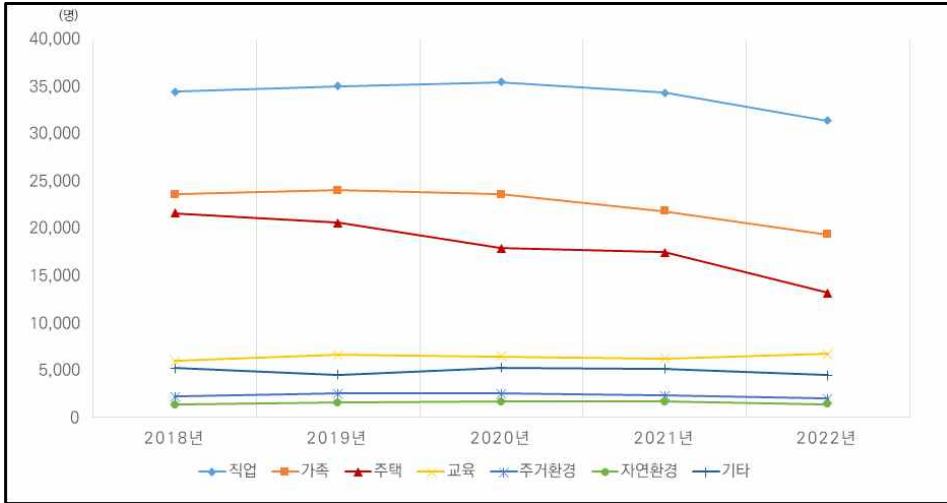
□ 타 시도와 대전 간 이동 분석(지역 내 이동 제외)

○ 전입 : 전입사유는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기타 > 주거환경 > 주거환경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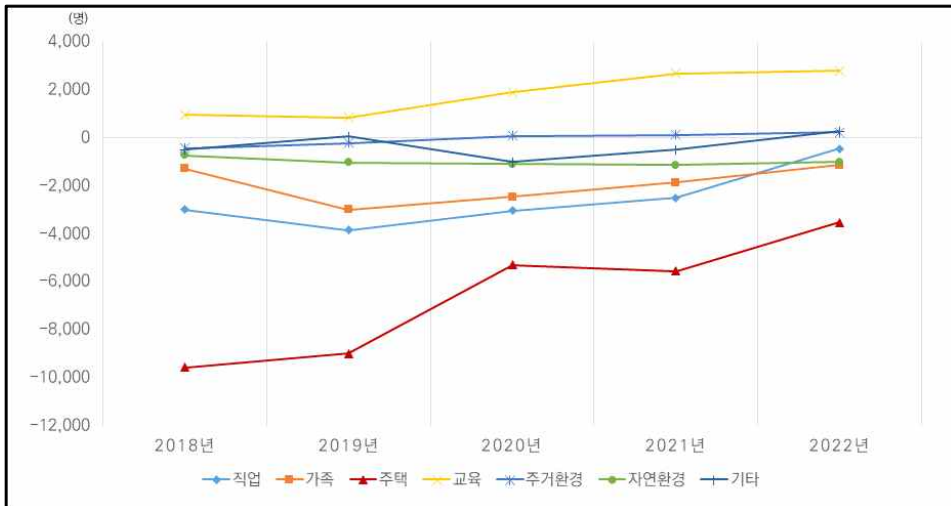
[그림 4-10] 최근 5년간 전입 사유(지역 내 이동 제외)

○ 전출 : 전출사유는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기타 > 주거환경 > 자연환경 순



[그림 4-11] 최근 5년간 전출 사유(지역 내 이동 제외)

○ 순이동 : 순이동 사유는 2022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자연환경
기타 > 주거환경 > 교육 순(시계열상 일부 차이 발생)



[그림 4-12] 최근 5년간 순이동 사유(지역 내 이동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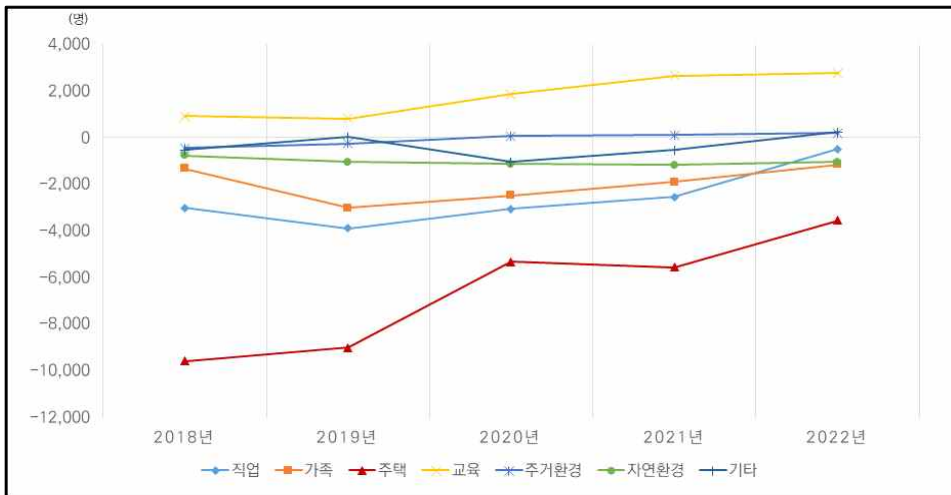
4. 전출입 사유에 따른 기초자치구별 순이동 변화

□ 다른 지역과 대전 및 지역 내 이동 포함 분석

1) 최근 5년간 기초자치구별 순이동 현황

○ 대전시 순이동 수를 파악하고, 전입 사유에 따른 순이동 현황을 파악하면, 인구 유출(-)의 주된 사유는 '주택'이나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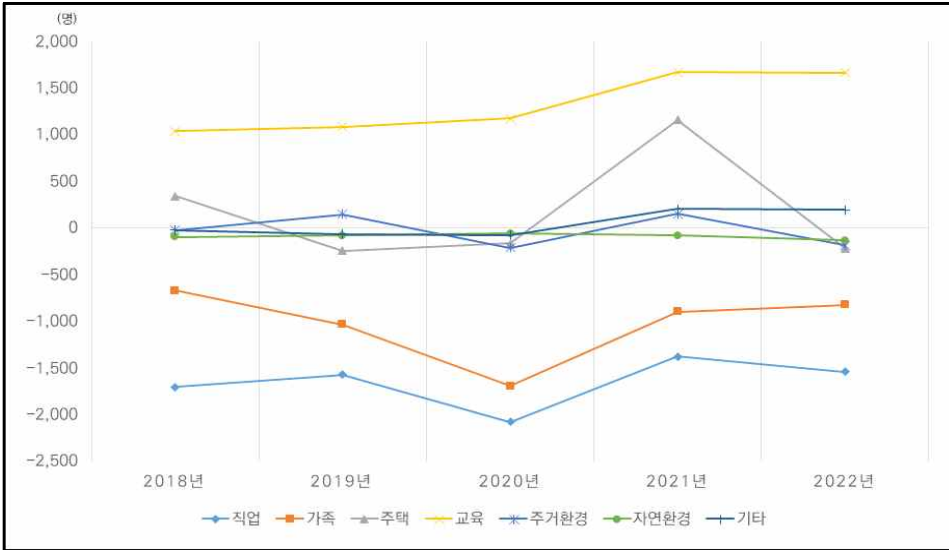
- 주된 전입 사유는 교육이 많고, 그 경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그림 4-13] 최근 5년간 대전시 순이동 사유 변화

○ 동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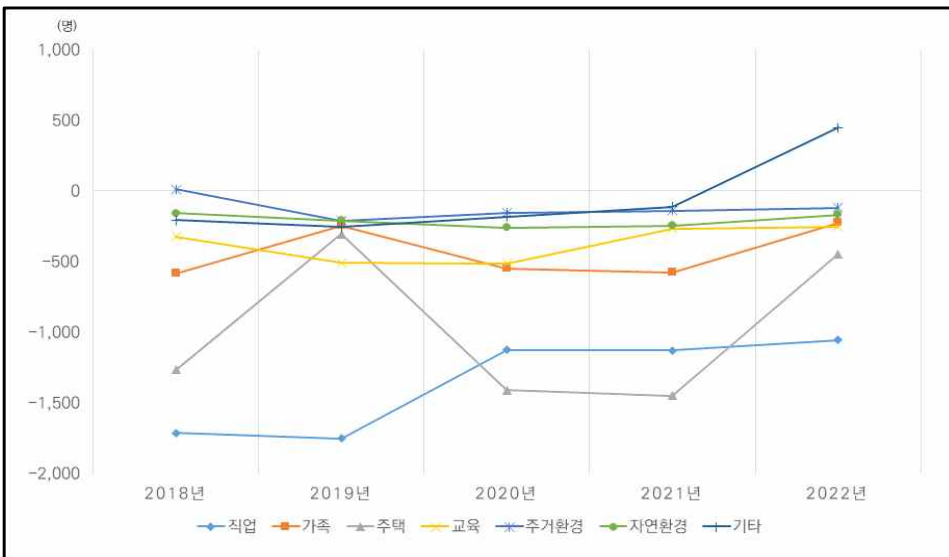
- 가장 많은 인구 유출(-) 사유는 '직업'임
- 다른 전입 사유는 시계열적으로 변화가 적었지만, '교육'이 점진적으로 인구 유입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4-14] 최근 5년간 동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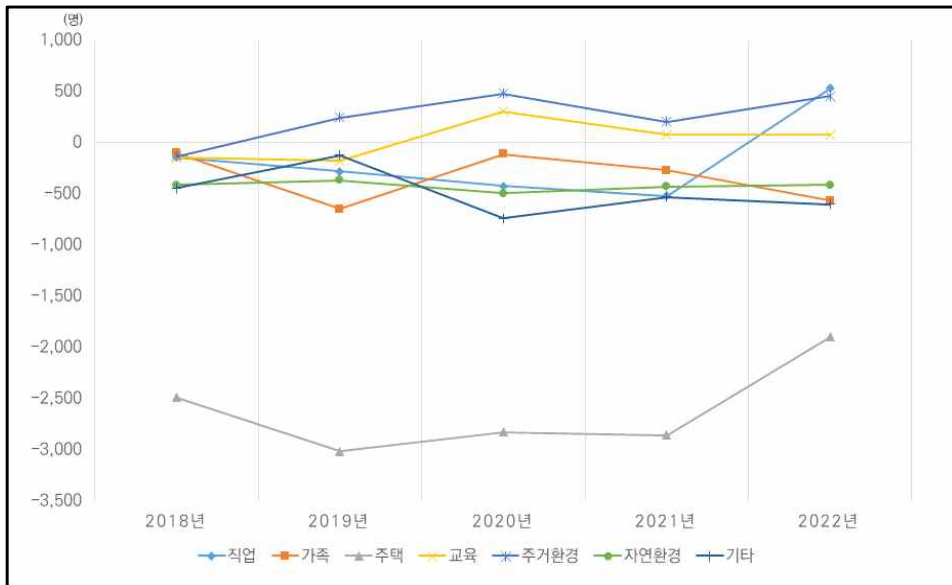
○ 중구의 가장 큰 인구 유출 사유는 ‘직업’임

- 전입사유 중 ‘주택’은 매년 큰 변동을 보였으며,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큰 인구유출(-) 사유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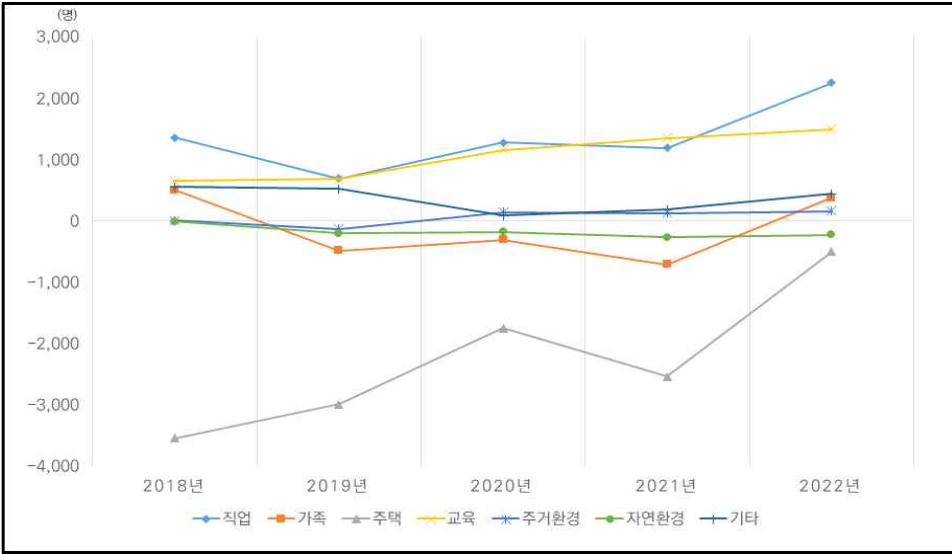
[그림 4-15] 최근 5년간 중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 서구의 가장 많은 인구 유출 사유는 ‘주택’이며, 전입 사유 중 ‘주택’은 다른 사유들과 큰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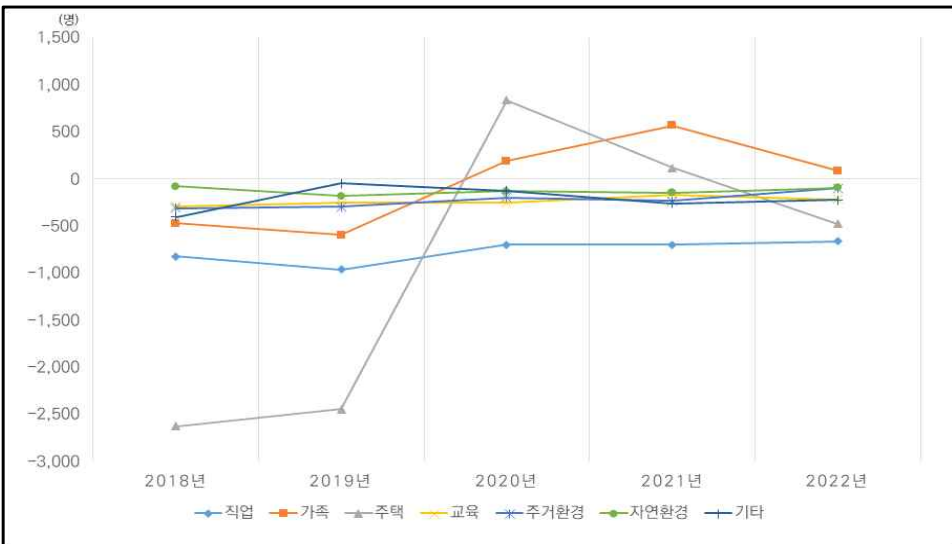
[그림 4-16] 최근 5년간 서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 유성구의 가장 큰 인구 유출 사유는 ‘주택’이며, 전입 사유 중 ‘주택’이 인구 유출(-)의 주된 이유였으나 완화 추세
- 유성구는 순이동 전입을 이끈 주된 이유가 ‘교육’과 ‘직업’이고 이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그림 4-17] 최근 5년간 유성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 대덕구의 전입사유 중 ‘주택’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이었으나, 2020년에는 인구유입(+의 가장 큰 이유였음



[그림 4-18] 최근 5년간 대덕구의 순이동 사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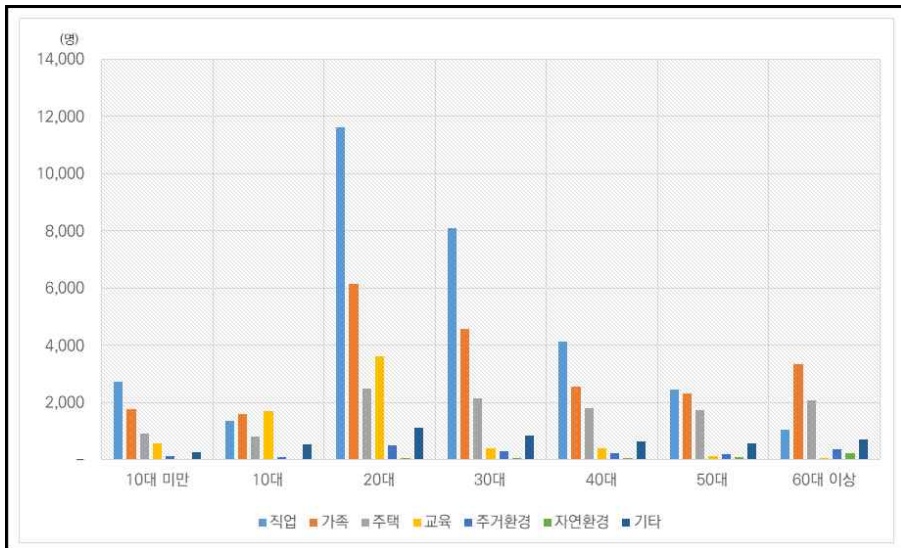
5. 연령대별 전출입 사유

대전과 다른 지역 이동 간 분석(지역 내 이동 제외)

1)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 사유

○ 연령대별 전입 사유

-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의 전입사유 1위는 ‘직업’³⁾
- 10대의 전입사유 1위는 ‘교육’, 60대 이상의 전입사유 1위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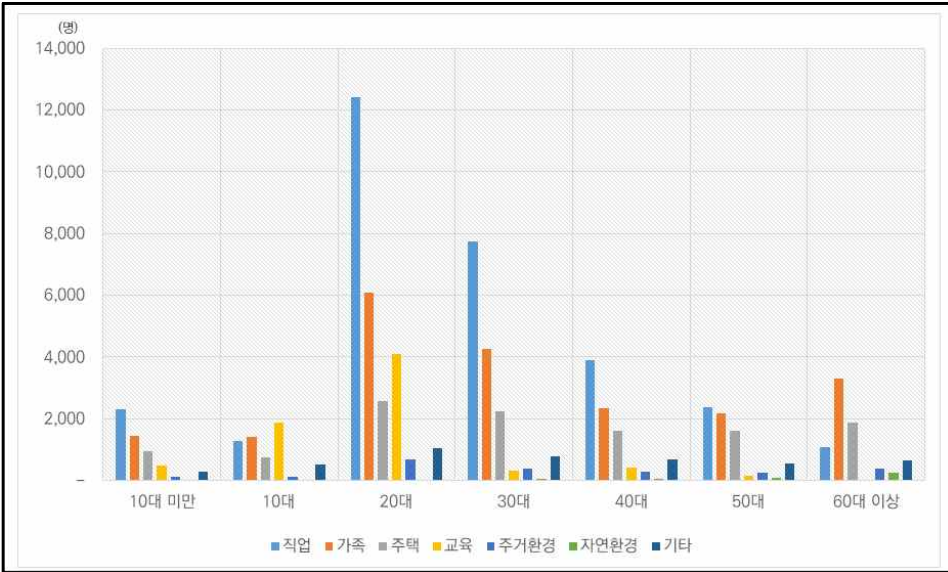


[그림 4-19] 2018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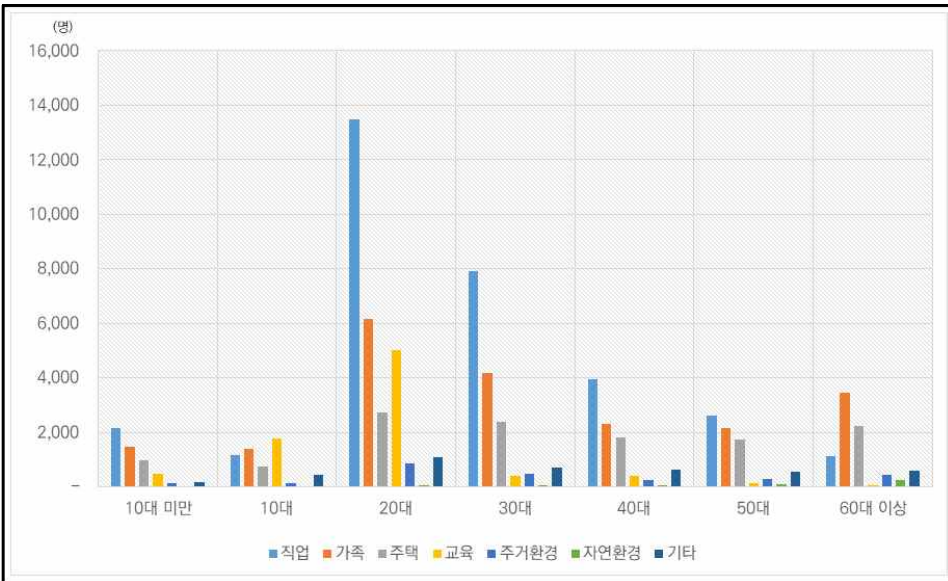
○ 2018년 20대와 30대의 전입 사유 다수는 ‘직업’임

- 20대의 경우엔 ‘교육’을 이유로 전입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데, 이는 (10대를 제외하고) 이후 세대엔 없는 특징임
- 50대부터 ‘가족’을 사유로 한 전입이 우세해지면서, 60대엔 ‘가족’을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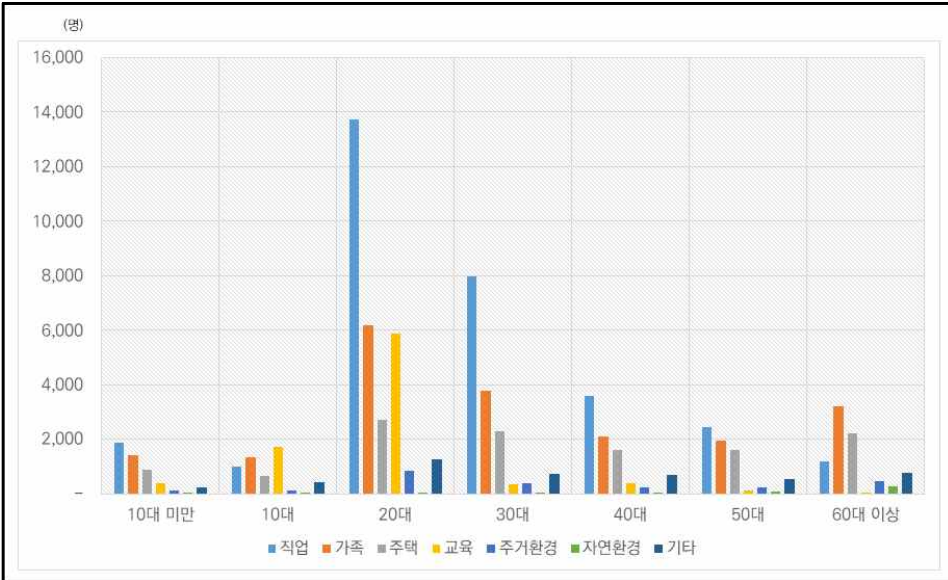
3) 10대 미만의 전입사유가 ‘직업’인 것은 전입신고시 세대주가 전입사유를 기입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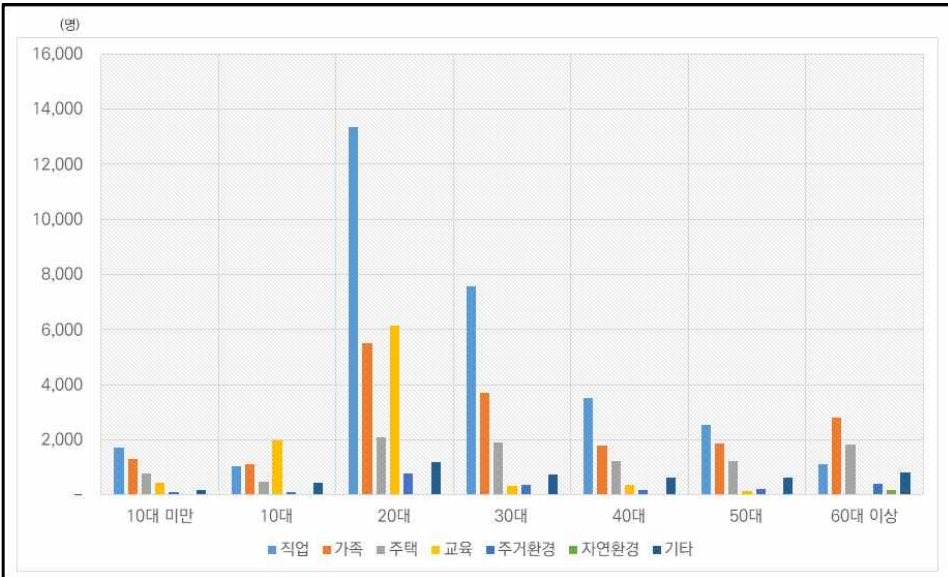
[그림 4-20] 2019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그림 4-21] 2020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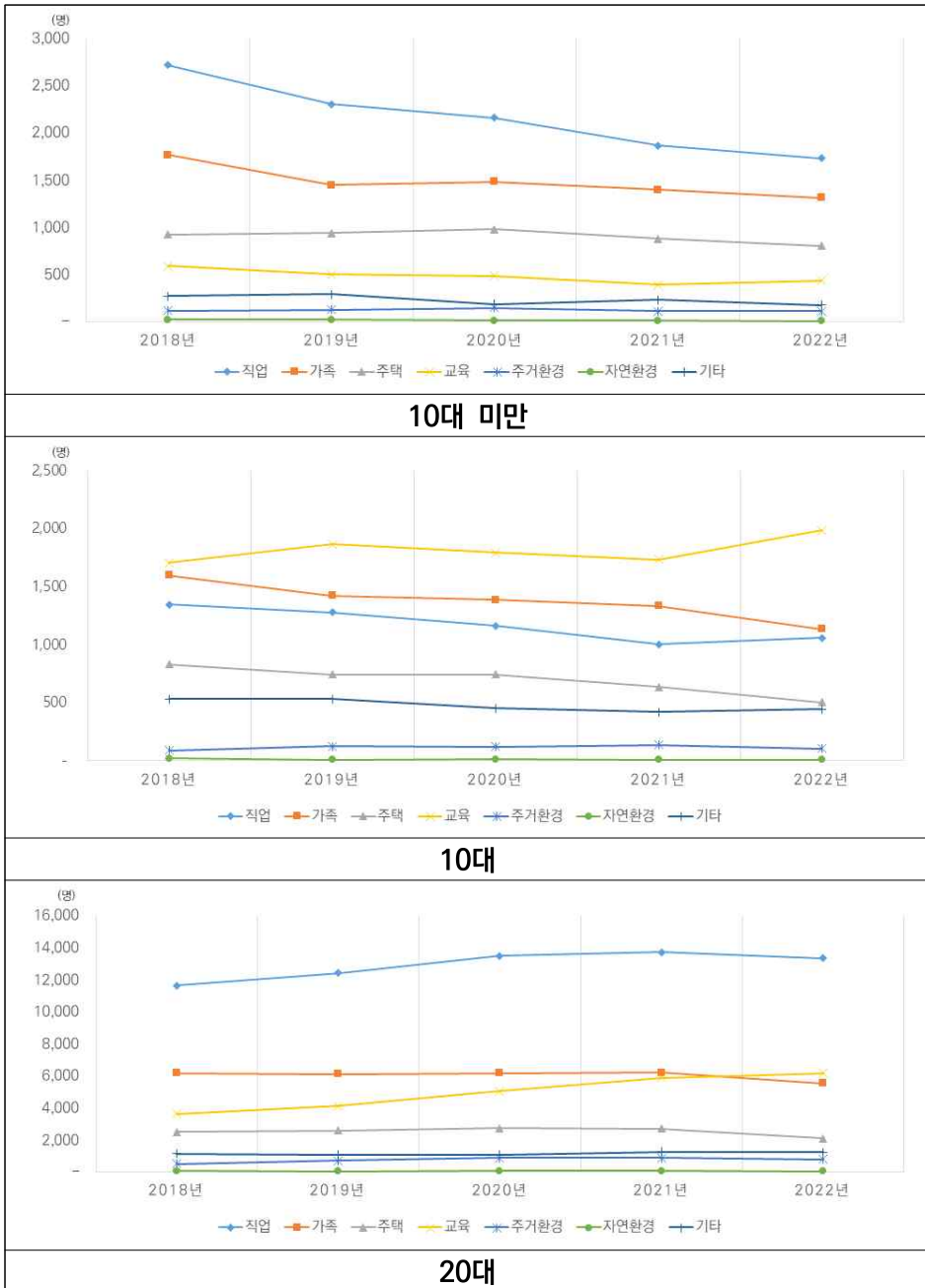
[그림 4-22] 2021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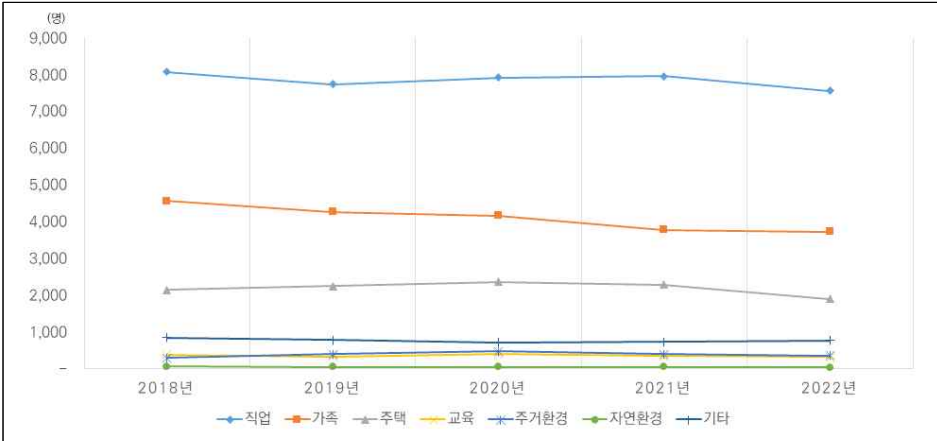
[그림 4-23] 2022년 연령대별 전입 사유

- 2022년에도 20대와 30대의 전입 사유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이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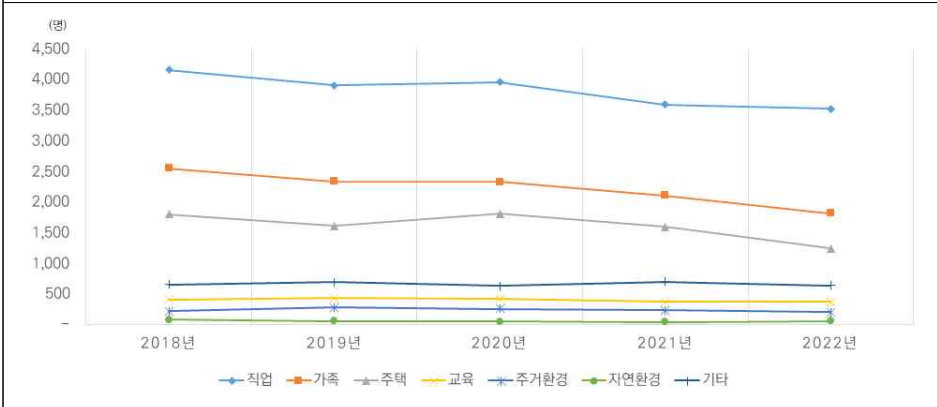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사유는 두드러진 변동이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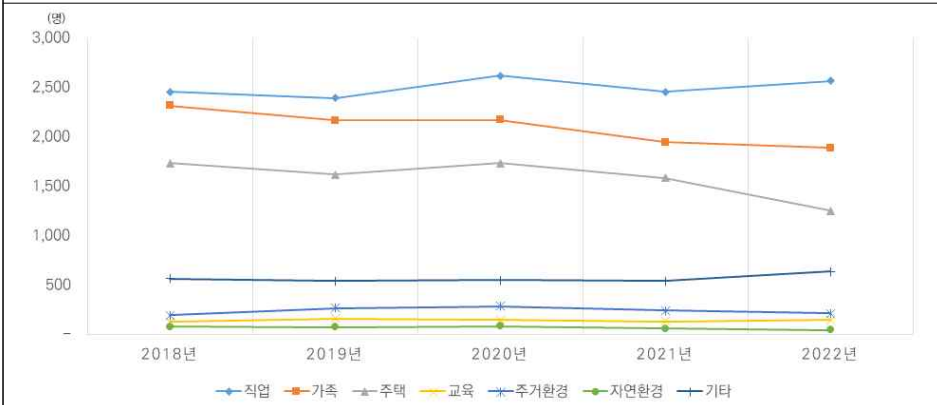
[그림 4-24]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 사유 변화(계속)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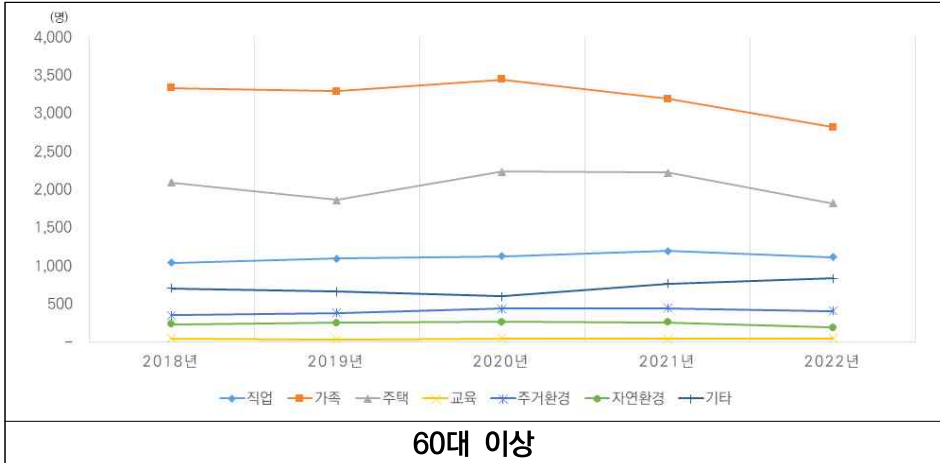


40대



50대

[그림 4-24]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 사유 변화(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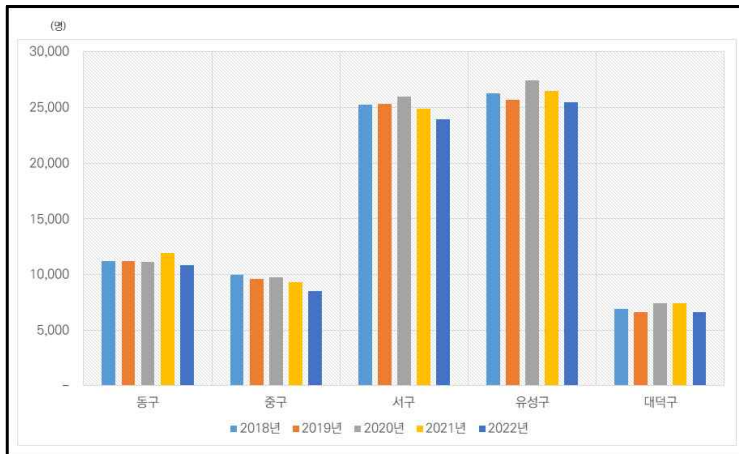
[그림 4-24]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입 사유 변화

6. 기초자치구별 전입 현황과 특성

대전과 다른 지역 이동 간 분석(지역 내 이동 제외)

1) 최근 5년간 전입 현황

- 최근 5년간 변화를 보면, 5개구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전입 감소
- 서구와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 전입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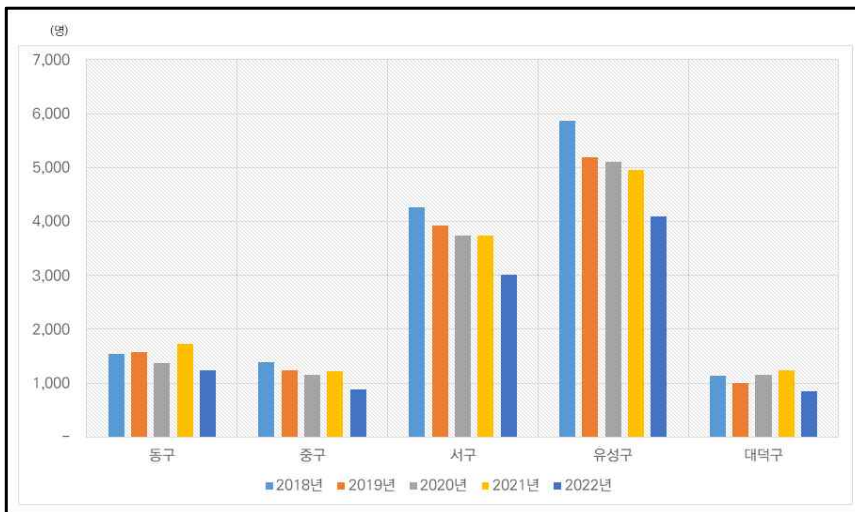
[그림 4-25] 최근 5년간 기초자치구별 전입 변화

7. 청년가구의 전입 현황4)

대전과 다른 지역 이동 간 분석(지역 내 이동 제외)

1) 전입 현황

○ 전입은 유성구, 서구, 동구, 중수, 대덕구 순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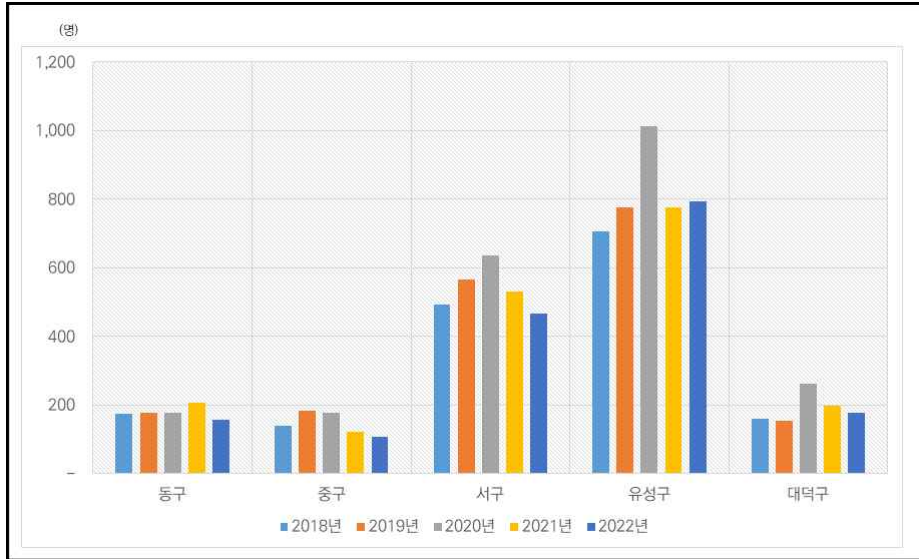
[그림 4-26] 최근 5년간 구별 전입 변화

2) 세종에서 대전으로의 전입 현황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이동 분석(지역 내 이동 제외)

○ 세종에서 전입 온 인구수는 구별로 증감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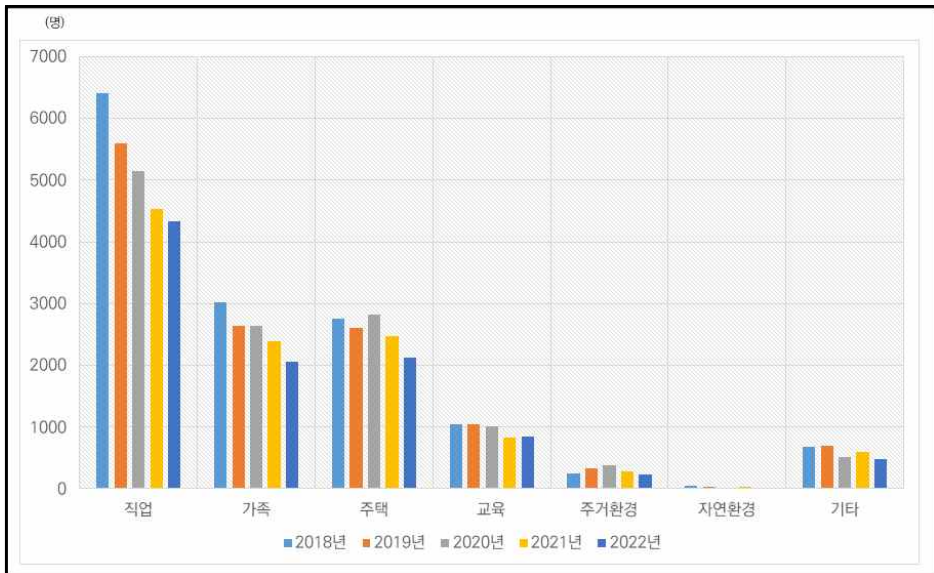
4) 합계출산율과 관련 있는 청년가구만 추출하여 조사(40대 이하, 4인 가구 이하, 1인 가구 제외)



[그림 4-27] 최근 5년간 구별 세종 전입자 변화

3) 전입 사유 현황

○ 전입사유는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기타 > 주거환경 > 자연환경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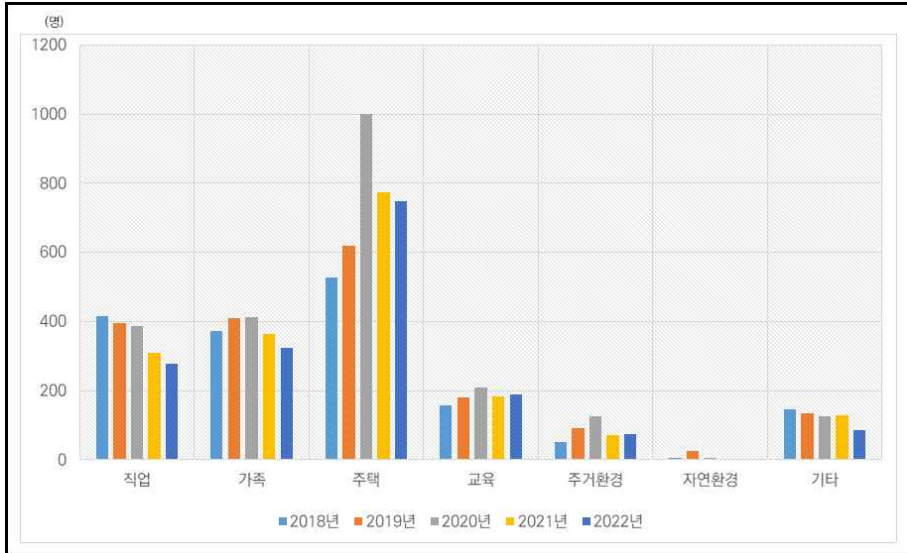


[그림 4-28] 최근 5년간 전입 사유 변화

4) 세종에서 온 전입 사유 현황

□ 대전과 세종 이동 간 분석(지역 내 이동 제외)

○ 전입사유는 주택 > 가족 > 직업 > 교육 > 기타 > 주거환경 > 자연환경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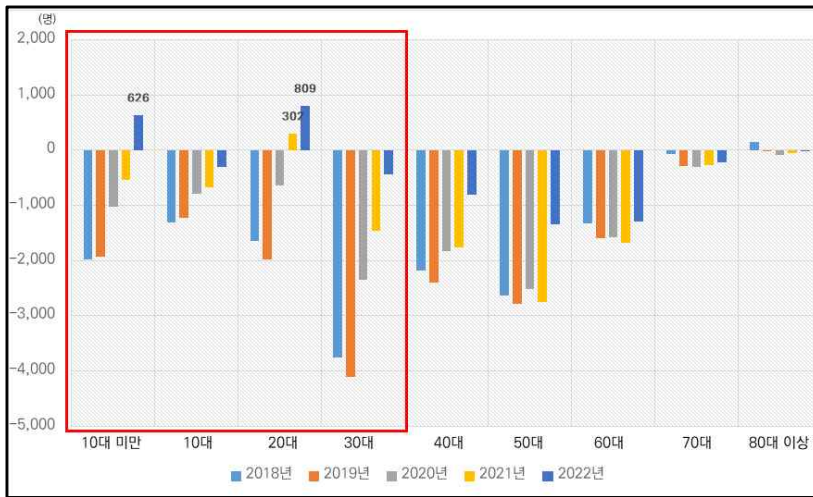


[그림 4-29] 최근 5년간 세종 전입자 사유 변화

8. 소결: 시기별 청년층 전출입과 출산율 변동

1) 30대 이하 세대의 순이동 증가

- 30대 이하 세대에서 인구 유출 경향(-)이 줄어들었음



[그림 4-30] 최근 5년간 세대별 순이동 변화

2) 전입사유는 ‘주택’과 ‘직장’

- 타 시도와 대전간 전입/전출/순이동의 사유 1위는 ‘주택’
- 지역 내 이동을 제외 했을 경우, 전입사유 1위는 ‘직업’

3) 시사점

- 30대 이하 청년가구의 순이동이 양(+)의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
- 이동의 주된 사유가 ‘주택’이며, 2019년~2021년 사이, 전출입의 변동이 크고 이동 사유 또한 ‘주택’이 다수를 차지함
- 세종-대전간 순이동도 양(+)의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 등은 주택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함

청년세대 대전 이동 분석 결과
시사점과 후속 연구 제안 사항

5장

5장 청년세대 대전 이동 분석 결과 시사점과 후속 연구 제안사항

□ 인구 이동 통계 기초한 설문조사 필요성

- 인구 현황과 이동의 특성, 전입신고서 분석을 활용한 청년 세대 대상 심층 설문조사 필요
 - 출산율과 관계 깊은 25세~45세 대전 전입 경험 시민 대상
 -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전출입 계기와 사유 심층 분석
 - 인과 관계 예측, 집단별 비교 등 출산과 인구 정책 간 관계 분석

□ 2021년부터 조금씩 상승한 합계출산율과 주택을 사유로 한 전출입

-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05명으로 저점이었으나, 2021년 0.810명으로 다소 상승, 2022년엔 0.842명으로 더 상승함
 - 유성구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점
- 최근 5년 동안 인구 유출은 둔화 경향
 - 2020년에 사람들의 이주(전출입)가 가장 활발했음
 - 2019~2020년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⁵⁾과 비슷한 패턴 보임
- 최근 5년 동안의 전출입 사유 변화
 - 주택을 이유로 한 전입 2020년에 급격 상승
 - 주택을 이유로 한 전입 경향은 다른 사유들보다 2020년, 2022년에 급격한 변화 보여, 다른 사유 변화 경향과 큰 차이 보임
- 최근 5년 대전과 세종 간 전출입 격차는 좁아지는 추세
 - 2018년 세종으로의 유출과 (세종에서) 대전으로 유입 간 격차 가장 크다가 점차 간격 줄어들음

5) 인포그래픽스 86호

- 2020년에 순이동(- 경향)이 가장 크게 달라짐
- 2020년에 세종에서 대전으로의 유입 가장 크면서, 유출이 크게 줄어듦
- 2020년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는 서구와 유성구로 가장 많이 이주
 - ‘주택’을 이유로 대전에 전입한 경향 뚜렷

인구 이동 통계에 근거한 행정동 중심 설문 대상 선정

- 2021년 기준 대전으로 이주한 40대 이하 인구는 주로 유성과 서구로 전입함
 - 2인 이상 40대 이하 가구는 전국에서 신성동, 가수원동, 관저2동, 노은 3동 등으로 주로 전입
 - 2인 이상 40대 이하 가구는 세종에서 노은3동, 관평동, 노은2동, 둔산 2동 등으로 전입함
 - 따라서 심층 설문조사는 관평, 노은, 도안 등을 중심으로 수행할 필요 있음

전입 사유의 구체화 필요

- ‘직업’ 과 ‘가족’ 등 전입신고서 상 사유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일과 가족 등 유형 내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사유 파악해야 함
 - 결혼과 분가, 독립 등 가족 사유뿐 아니라, 생활물가, 주택가격 등 구체적 언어로 제시
- 정주 여건 관련한 구체적 사유 제시 필요
 - 교통체증 적고, 대중교통 편리, 병원과 문화시설 등 구체적 정주여건 제시
- 도시 이미지 관련한 문항 제시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화 가능성 탐색도 필요함

청년 지원 정책,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 등 정책 수요 파악 필요

- 청년 창업지원, 생활비 혹은 주택 보조 등 청년 지원 정책 항목 만족도

와 필요 정도 탐색

- 영유아 교육과 돌봄 수요와 청년 정책 수요 간 비교 필요
 - 양육기본수당, 교육비 무상 지원 효과

전반적인 대전 거주 만족도 측정

- 대전 주택과 토지, 지역 발전 가능성 전망 측정
- 주거환경 만족도의 세부 항목으로 교육과, 학교인접성 등 양육에 필요한 여건 수요 파악

청년세대의 대전 정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 세종에서 온 사람들의 세종 복귀 의향은 낮지만, 서울 경기로 갈 가능성 큼
- 어떤 이유로 다른 지역 방문하는지 파악해야 함

청년 세대 내 집단 별 분석 등 심층 분석 방법의 활용 제안

- 청년세대의 대전 거주 경험과 정책적 수요 파악 관련 심층 분석 필요
 - 집단별 분석 (t-test, ANOVA 등),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인과관계 분석(Regression Analysis) 등 수행 필요
 - 대전 정주 환경과 대전 지속 거주 의사, 정책 만족도와 출산 계획 등 문항별 관계와 인과 예측 요인 파악 필요

참고문헌

- 대전세종연구원(2023), 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 2023-5호(통권82호)
- 주혜진·정경석·안용준(2018), <대전권 인구이동 양상과 특성-세종시 유입인구의 이주사유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 통계청, 2018년~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 통계청, 2023, 『2022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 통계(잠정)』, 통계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